

정답 ·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 정답과 해설

# 교과서 갈래 특강

## 1 시

본문 6쪽

### 개념 확인 **꼭** 꼭

1 × 2 ○ 3 ① 4 역설법,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  
어니

- 1 시어는 시에 쓰인 말을 의미하며 시어가 모이면 시행이 되고, 시행이 모이면 연이 만들어진다.
- 2 음보는 시를 낭송할 때 같은 길이로 읽히는 최소 단위로 쉬어 읽기의 단위가 된다.
- 3 반어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제와 반대되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에 해당한다.
- 4 <보기>의 시에서는 겉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인 역설이 쓰였다. '외로운'이라는 부정적 표현과 '황홀한'이라는 긍정적 표현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모순적 표현에 해당한다.

## 2 고전 소설

본문 7쪽

### 개념 확인 **꼭** 꼭

1 고전 2 권선징악 3 × 4 ○ 5 ⑤

- 1 고전 소설이란 일반적으로 갑오개혁 이전에 창작된 소설을 이르는 말로 우리나라의 경우 신소설이 나오기 전까지 창작된 소설을 이른다.
- 2 권선징악이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뜻으로, 고전 소설에서는 권선징악의 도덕적 의식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다.
- 3 고전 소설에는 일관된 성격을 보여 주는 평면적인 인물이 주로 등장하며, 개성적인 인물이 아닌 전형적인 인물이 주로 등장한다.
- 4 고전 소설에서는 필연적인 상황이나 원인 없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5 「춘향전」과 「양반전」 모두 지배 계층에 대한 풍자가 나타나는 고전 소설이다. 풍자는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법에 해당한다.

## 2 정답과 해설

## 3 정보를 전달하는 글

본문 8쪽

### 개념 확인 **꼭** 꼭

1 기사문 2 정의 3 ② 4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  
하며 글을 읽는다.

- 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종류에는 설명문, 안내문, 보고문, 기사문 등이 있다.
- 2 설명하려는 대상이 추상적인 개념일 때, '정의'나 '예시' 둘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핵심 개념이나 뜻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정의'에 해당한다.
- 3 글을 읽기 전에는 읽는 목적을 확인하고 글의 제목, 소제목, 그림 등을 훑어보고 배경지식을 떠올리며 글의 내용을 예측해야 한다.
- 4 <보기>의 글은 유선 이어폰과 무선 이어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말해 주고 있으므로 각각의 특성과 공통점,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며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 좋다.

## 4 매체

본문 9쪽

### 개념 확인 **꼭** 꼭

1 영상 2 복합 3 확대 4 ⑤

- 1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전달되는 매체를 영상 매체라고 한다.
- 2 영상 매체의 특성은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상 매체는 내용을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
- 3 현대 사회에서는 영상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의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되고 파급력이 강해졌다.
- 4 교육이나 캠페인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례에 포함된 비속어나 차별적 표현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다채로운 표현, 함께 만드는 영상

## (1) 개성적인 표현

본문 12~13쪽

### 개념 확인 **극복**

- 1 개성 2 이치 3 ⑤ 4 ② 5 반어 6 ⑤  
7 풍자 8 ④

### 확인 문제

본문 16쪽

- 1 ② 2 ③ 3 지금 대낮인 사람들 4 ③ 5 현실  
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보지 못한다. / 현실에 만족하며 꿈과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는 어둡다.

- 이 시는 어둠 속에서만 빛나는 별의 특성을 통해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삶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 이 시는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라는 이치에 맞지 않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끌고 참신한 느낌을 준다(ㄴ). 또한 '별', '어둠', '대낮'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사용하여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ㄷ).

### 오답 해설

-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실제와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 대상의 부정적 속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풍자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 개념 플러스

#### 역설과 반어

- 차이점: 역설은 표현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나 오류가 있으나, 반어는 표현에 논리적 모순이나 오류가 없음.
- 구분법: 표현 자체에 모순이 있지만 그 안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고 있으면 역설이고, 표현 자체에 모순은 없지만 표현하려는 원래 의도와 반대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면 반어에 해당함.
  - ㉠. 아야, 님은 갖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님이 갖는데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표현 자체에 모순이 드러남. 하지만 이는 님을 떠났지만 마음속으로는 님을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별의 상황에서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한 역설에 해당함.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임이 나를 떠날 때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표현 자체에는 모순이 드러나지 않음. 하지만 죽어도 울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임과의 이별을 몹시 슬퍼하는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음. 실제 시 전체의 맥락을 보면 '나'는 임을 매우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에 해당함.

- '지금 대낮인 사람들'에 쓰인 '대낮'은 '환히 밝은 낮'을 뜻하는 단어로 '어둠'과 대조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슬픔이나 걱정거리가 없이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별'이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소재이므로 이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여 꿈을 꾸거나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는 시구를 통해 별은 어둠 속에서만 빛나며 어둠이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별'이 보이는 것이지, '별'이 어둠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은 꿈과 희망을 상징하므로, 밝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뜻하는 '대낮'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다.
- '대낮인 사람들'에게는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별'을 '대낮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라고 하였으므로 '별'은 '어둠인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대상이다.

- [서술형]**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없고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보지 못해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별들이 보이지 않으니 '어둡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낮'이 '어둡다'고 표현한 역설을 통해 시인은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미래가 어둡다는 의미를 전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18~20쪽

- 1 ㉠ 어둠 ㉡ 희망 2 ④ 3 힘들고 어려운 4 ④  
5 ③ 6 ① 7 · 반어적 표현: 잊었노라 · 화자의 정서: 그리움

-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에서 '별'은 대낮에는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만 빛난다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별'은 '어둠'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갖게 되는 꿈과 희망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밝고 환한 대낮처럼 걱정거리 없이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②, 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슬픔이나 아픔, 걱정이 없어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 ③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희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 시는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듯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주제를 전하고 있다.

4 '지금 대낮인 사람들'의 미래를 '어둡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지금 대낮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라는 시구는 걱정 없이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이 없어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뜻하므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③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는 '대낮'이 '어둡다'라는 상식에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보지 못한다는 진실을 전하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다.
- 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어둡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5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라는 역설적 표현은 삶의 깨달음을 진지하게 전하고 있는 표현이지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쓰인 표현은 아니다.

6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라는 시구를 통해 화자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에 '당신'이 화자를 찾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는 사랑하는 사람인 '당신'이 화자를 떠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7 이 시의 화자는 먼 훗날에 입을 만났을 때를 가정하여 '있었노라'라고 자신의 실제 마음과는 반대로 말함으로써 입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더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확인 문제**

본문 22~29쪽

- 1 ⑤    2 ④    3 ①    4 ③    5 ②    6 ④    7 ⑤  
 8 양반은 가난해도 존경을 받지만 평민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대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9 ①    10 ④  
 11 이 고을의 양반이 부자에게 자신의 양반 자리를 팔아 그 대가로 천 석이나 되는 관곡을 값었다.    12 ④    13 ①  
 14 ③    15 ④    16 도둑놈

1 발단 부분에는 양반이 관곡을 값지 못해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양반을 감옥에 가두려는 관찰사와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 눈물을 흘리는 양반 사이의 갈등, 관곡조차 값지 못하는 양반과 이를 한심하게 여기는 아내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인물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양반이라는 신분은 존재하고, 관아, 관찰사, 관곡 등의 단어가 쓰인 것을 통해 시대적 배경이 조선 시대임을 알 수 있다.

**4 정답과 해설**

- ② 관곡을 값지 못해 대책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양반의 모습과 이런 양반을 비판하는 아내의 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양반이 가난하여 관곡을 꾸어다 먹었고 이를 값지 못해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한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으며, 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취하고 있다.

2 '그는 성품이 어질고 글 읽기를 매우 좋아했다.', '고을에 군수가 부임해 올 때면 늘 이 양반을 먼저 찾아가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라고 하였으므로 양반은 군수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ㄴ). '그는 집이 몹시 가난해서 관아에서 곡식을 꾸어다 먹었는데 그것이 어려워 쌓이다 보니 그 빛이 천 석이나 되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양반이 여러 해 동안 관아에서 곡식을 꾸어 먹고도 이를 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ㄷ).

**오답 해설**

- ㄱ. 양반이 관아의 곡식을 꾸어다 먹고 이를 값지 않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 ㄹ. 양반은 빛을 값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자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양반이 가난해서 그동안 관곡을 꾸어다 먹은 것으로 보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아의 곡식을 꾸어 주는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관찰사가 빛을 값지 못하는 양반을 잡아들이라고 명한 것으로 보아 양반도 처벌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④ 발단 부분에서는 양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뿐 평민에 대한 언급은 없다.
- ⑤ 양반이 몹시 가난해서 관아에서 곡식을 꾸어다 먹고 이를 값지 못해 감옥에 가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몰락한 양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관곡을 값지 못해 울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먹고사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양반의 무능을 비꼬고 있다. 이를 통해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부자가 양반에게 신분을 팔면 관곡을 대신 값아 주겠다고 하자 '양반은 몹시 기뻐하며 즉시 부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존경을 받지만 평민은 아무리 부유해도 천대를 받는다며 부자는 불만을 토로한다. 이는 평민에 대한 천한 대접이 부당함을 강조하는 것이지, 양반을 존경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부자는 양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도운 것이 아니라,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이 되면 천대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양반과 거래한 것이다.
- ④ 군수는 부자에게 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소송에 대비하여 양반 신분을 매매했다는 증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 ⑤ 군수는 자신에게 굽실거리며 찢절매는 양반을 보고 처음에는 놀라지만, 양반의 설명을 듣고 양반이 신분을 팔아 평민이 되어 평민 행세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6 부자와 양반 사이에 신분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 신분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ㄴ). 양반이 신분을 판 후에 병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고 나와 마당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자신을 ‘소인’이라고 낮춰 부르는 것에서 신분에서 따라 복장이나 호칭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ㄷ).

**오답 해설**

- ㄱ. 부자는 평민으로, 가난한 양반보다 신분은 낮지만 경제력은 크다.
- ㄴ. 부자와 양반 사이의 신분 매매를 통해 신분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도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 돈을 받고 신분을 판 양반은 군수 앞에서 평민 행세를 하며 절절맨다. 이렇게 양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내는 희화화의 방법을 통해 신분을 매매한 양반의 행태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의 방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은 상징, ②는 반어, ③은 비유, ④는 역설의 표현 방법에 해당한다.

8 [서술형] 부자는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이라 하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천대받고 살지 않느냐.’라고 하며 평민 신분으로 인해 천대받는 구체적인 내용을 줄줄이 늘어놓으며 비참한 심정을 밝힌다. 즉 부자는 조선 후기 신분제 사회에서 평민 신분으로 인해 천대받는 것이 비참하여 양반에게 신분 매매를 제안한 것이다.

9 군수가 작성한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는 양반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 도리나 생활 태도 등을 담고 있다.

10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에서 양반이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제시된 내용들은 실리와 거리가 먼 걸치레나 체면과 관련된 것들이다. 형편에 맞지 않게 걸만 번드르르하게 꾸미기 위한 예절이나 법적인 허례허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체면을 지키는 것이나 허례허식에 빠져 정작 중요한 현실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양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이를 비판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11 [서술형] 이 증서는 부자와 양반 사이의 신분 매매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 증서를 만든 계기는 ㉠의 바로 뒤에 언급되어 있다. ‘이 고을의 양반이 자신의 양반 자리를 팔아 관곡을 갚았는데 그 값이 쌀 천 석이니라.’에서 양반이 부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팔아 그 대가로 관곡을 갚은 일이 증서 작성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천한 일’은 양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느리게 걸으면서 신발 뒤축을 끌듯이 걸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양반이 해야 할 일에 해당한다.

13 손에 돈을 쥐면 안 되고 쌀값을 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다. 즉 이렇게 먹고사

는 실생활과 관련된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어 경제적으로 무능해진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4 7에는 양반이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고 횡포를 부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부자가 이를 ‘도둑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양반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백성들을 괴롭히는 양반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양반이 평민을 괴롭히는 내용은 나와 있으나 둘 사이의 갈등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양반이 누리는 부당한 혜택과 양반의 부도덕성, 비인간적인 모습을 강하게 비판하며 양반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양반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양반 계층에게 경종을 울리고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신분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양반이 누리는 특권과 백성들에 대한 횡포를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양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보기 어렵다.

15 문과에 급제한 양반은 권력을 남용하여 온갖 재물을 모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특권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재물을 수탈하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양반이 경제 활동에 무관심한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홍패’를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돈 자루’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② ‘홍패’는 문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주던 증서로, 양반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 ③ 벼슬에 오르면 특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수탈하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⑤ 문과에 급제했다는 것만으로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양반 계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였음을 보여 준다.

16 8에서 부자는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을 보고 자신을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라며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고 도망간다. ‘도둑놈’은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에 나온 양반의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비난하는 말인 동시에 양반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다.

1 ①    2 ⑤    3 ②    4 ①    5 ②    6 ④    7 ③

1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은 부자와 양반 사이에 이루어진 신분 매매를 군수가 증서로 작성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③, ④, ⑤는 이 글에 나온 내용이지는 않지만, 소설 전체의 중심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양반은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글 읽기만 좋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관곡을 갚지 못하면 옥에 갇힐 상황에서도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율기만 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

**오답 해설**

- ① 양반은 성품이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 ② 부자는 자신이 돈이 많은데도 신분이 낮아 양반과 달리 천대를 받는 것에 비참함을 느꼈다.
- ③ 부자는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이 양반이 지켜야 할 것들만을 다루고 있어서 이에 실망해 증서를 좀 더 좋은 쪽으로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 ④ 군수는 나중에 생길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신분 매매 증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3 아내는 양반인 남편이 관곡조차 갚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양반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현실 대처 능력이 없는 양반을 비판하고 있다.

4 (가)~(다)는 모두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과장하거나 조롱하며 우스꽝스럽게 그려냄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풍자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

**오답 해설**

②는 반어, ③은 해학, ④는 비유, ⑤는 운율의 표현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개념 플러스**

**풍자와 해학**

	풍자	해학
공통점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함.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가운 비판적 웃음</li> <li>• 대상의 잘못을 드러내는 공격적 태도가 드러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한 동정적 웃음</li> <li>• 대상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태도가 드러남.</li> </ul>

5 (가)는 양반의 아내의 말을 통해 관곡도 갚지 못하는 양반의 경제적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ㄱ). (나)는 추위와 배고픔을 참고 견디며 가난을 걸어로 드러내지 말아야 함과 외양을 늘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체면을 중시하고 허례허식에 얽매인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ㄴ). (다)에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백성을 수탈하고 백성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과 이를 도둑놈이라고 비난하는 부자의 말이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ㄷ).

**오답 해설**

- ㄷ. (가)를 보면 양반이 글 읽기에 빠져 있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다.
- ㄹ. (나)를 보면 실리를 얻을 수 없는 사소한 예법도 엄격히 지키려는 양반의 모습이 나와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예법을 무시하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이 소설을 통해 작가는 가난한 양반과 평민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양반의 부정적인 면들인 무능력, 허례허식, 부도덕성, 위선, 이중성 등을 풍자의 방법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7 풍자는 개인이나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 대상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ㄱ). 또한 대상을 비판할 때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아서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유도한다(ㄷ).

**오답 해설**

ㄴ. 풍자는 개인 또는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되,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과장하기, 왜곡하기, 비꼬기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비판한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33~35쪽

1 ㉠, ㉡, ㉢, ㉣, ㉤    2 ㉣    3 ㉢    4 ㉣    5 ㉠

1 역설이나 반어를 활용하여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먼저 가치 있는 경험을 떠올린 후 그중 시로 표현할 경험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그때의 감정을 정리한다. 그런 후에 역설이나 반어를 활용하여 당시 상황이나 정서가 잘 드러나는 표현을 만들고, 주제가 잘 드러나게 시를 완성한다.

2 ‘계란으로 바위 치기’는 대항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역설적인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오래된’은 과거와 어울리는 단어이다. ‘오래된 미래’라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과거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를 엿볼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 ② ‘상처뿐인 영광’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상처’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역설적 표현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치른 대가가 너무 클 때 쓰는 표현이다.
- ③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급한 일일수록 서두르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 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는 ‘지다’와 ‘이기다’를 함께 사용한 역설적 표현으로, 맞설 형편이 못 되는 아주 수준이 어린 상대한테 육신각신 시비를 가리기보다 이랑 있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양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이다.

3 시는 주로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어보다는 개성적이고 감각적인 시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다.

4 풍자의 대상은 개인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다. 누리꾼이 각종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될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5 풍자는 대상의 잘못된 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비꼬거나 과장하기, 왜곡하기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웃음을 유발하며 비판하는 표현 방법이다.

**오답 해설**

②는 과장하기, ③은 왜곡하기, ④는 비꼬기, ⑤는 비교하기로 모두 풍자의 표현 방법에 해당한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37쪽

1 ④    2 (1) 증서 (2) 증인 (3) 증거

1 '예매(豫買)'는 '정하여진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샀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여기에 쓰인 '매(買)'는 '사다'라는 뜻이다. 나머지 단어에 쓰인 '매(賣)'는 모두 '팔다'라는 뜻이다.

**오답 해설**

- ① '매출(賣出)'은 '물건 따위를 내다 파는 일'을 뜻한다.
- ② '매점(賣店)'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작은 상점'을 뜻한다.
- ③ '판매(販賣)'는 '상품 따위를 팔'을 뜻한다.
- ⑤ '매진(賣盡)'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다 팔려 동이 남'을 뜻한다.

- 2 (1) 다이아몬드가 정품임을 보증하는 '문서'를 나타내는 단어로는 '증서'가 적절하다.  
 (2) 친구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그가 직접 법정에서 나서므로 '증인'이 적절하다.  
 (3) 상처투성이인 두 손은 그가 험한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왔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므로 '증거'가 적절하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40~43쪽

- 01 ④    02 ①    03 ①    04 ②    05 ④    06 ③은 밝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⑥은 어둡고 힘든 상황을 의미한다.  
 07 ①    08 ①    09 ④    10 ①    11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마음 /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12 ④    13 ④  
 14 ④    15 빛(관곡)을 갇아 줄 테니 양반 신분을 자신(부자)에게 팔라고 한 것이다.    16 ④    17 ③    18 ④

01 이 글의 갈래는 시에 해당한다. 시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참신하게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 함축적인 시어에 담긴 의미는 시인이 시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낸 것으로 비유나 상징, 심상 등을 통해 만들어진다.

**오답 해설**

①, ③은 소설, ②, ⑤는 수필의 특성이다.

02 '대낮'은 밝음의 이미지를, '어둠'은 어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이다. 이 시는 '밝음과 어둠'이라는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ㄱ). '별', '대낮', '어둠'은 각각 '꿈과 희망', '밝고 만족스러운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상징적 의미의 소재이다. 이런 소재를 사용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만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주제를 전하려는 시인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ㄴ).

**오답 해설**

- ㄷ. 시각적 심상 이외에 다른 종류의 감각적 심상은 쓰이지 않았다.
- ㄹ. 이 시는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별의 속성을 바탕으로 얻은 시인의 깨달음을 상징적 의미의 시어나 시구를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 시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다.

03 '별, 대낮, 어둠,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ㄱ).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과 같은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ㄴ).

**오답 해설**

- ㄷ. 시행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게 반복되어 쓰인 것은 없다.
- ㄹ. 소리를 흉내 낸 말인 의성어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인 의태어는 쓰이지 않았다.

04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 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꿈을 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현재 슬픔이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다.

05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는 환히 밝은 낮을 뜻하는 '대낮'과 어울리지 않는 '어둡다'라는 서술어를 사용하여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안에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은 반어, ②, ③은 풍자, ⑤는 의인법에 해당한다.

06 [서술형] '대낮'과 '어둠'은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로, '대낮'은 밝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어둠'은 그와 반대로 어둡고 힘든 상황을 뜻한다.

07 이 시는 '잊었노라'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 없는 화자의 정서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8 화자는 먼 훗날 '당신'이 자신을 찾는 상황을 가정하고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당신'은 화자를 떠난 상황이며, 그로 인해 슬픔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먼 훗날 '당신'이 자신을 찾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당신'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재회를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화자가 '당신'을 떠나게 하고 이를 후회한다는 내용은 시 안에서 찾을 수 없다.
- ④ 미래에 '당신'과 헤어지게 될 상황을 가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화자를 떠나간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될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 ⑤ 이별한 '당신'을 잊지 못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 '당신'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9** 시의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수미상관의 방법은 이 시에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먼 훗날'과 '당신이'를 찾아보면 / 그때에'내 말이'잊었노라'와 같이 각 행이 3음보로 이루어져 있고, 이 3음보의 반복을 통한 민요조 율격이 이 시의 주된 운율 형성 요소에 해당한다.
- ② '먼 훗날(3) 당신이(3) 찾으시면(4) / 그때에(3) 내 말이(3) 잊었노라'(4)와 같이 글자 수를 '3-3-4'로 일정하게 반복하고 있다.
- ③ 모든 연의 끝에 '잊었노라'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운율을 만들어 내고 있다.
- ⑤ 1~3연은 모두 '~면 잊었노라'라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만들어 내고 있다.

**10** 이 시의 주된 정서는 떠나간 입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그리운 우리 님', '날마다 피어나는 우리 님 생각'이라는 구절에서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 ③ 빗소리를 들으며 빈방에서 홀로 훌쩍거리는 모습을 통해 외로움과 쓸쓸함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적절한 시기의 이별을 아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11 [서술형]** 이 시의 화자는 겉으로는 '잊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떠나간 '당신'을 잊을 수 없어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는 '무척 그리다가',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잊고'라는 시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부자는 평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늘 천대받고 사는 것이 싫어서 양반이 되기 위해 양반 신분을 산 것이지, 양반의 딱한 사정을 가엾게 여겨서 관곡을 갚아 준 것이 아니다.

**13** (가)에서 양반이 여러 해 동안 꾸어다 먹은 관곡을 갚지 못하자 관찰사가 군수에게 양반을 잡아들이라고 명한다. 따라서 신분이 높아도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부자는 자신이 받은 차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나)에서 부자는 양반의 신분을 사고 대신 양반의 빚을 갚아 주었다.
- ③ (나)의 부자는 평민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다.
- ⑤ (가)에서 양반은 집이 몹시 가난해서 관아에서 곡식을 꾸어다 먹었다고 하였다.

**14** ㉠에서 양반이 마당에 엎드려 절을 하거나 자신을 낮추며 군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찢찢매는 것은 자신이 신분을 매매한 것을 군수가 알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다. 이는 양반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평민 행세를 하는 양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돈을 주고 신분을 매매한 양반의 행태를 풍자하는 것이다. 실제로 양반은 자신이 신분을 팔아 평민처럼 행동하는 것임을 군수에게 설명하고 있다.

**15 [서술형]** 부자는 가족과 상의한 끝에 양반을 찾아가 자신이 빚을 갚아 줄 테니 양반의 신분을 자신에게 팔라는 제안을 한다.

**16** (다)는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이 서술된 부분으로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으로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을 나열하고 있다.
- ② (가)는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 (다)는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에 해당한다.
- ③ (나)에서 부자가 양반 매매 증서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여 군수가 (다)의 양반 매매 증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
- ⑤ (라)에서 부자는 (다)의 내용을 듣다가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평가하며 양반 되기를 포기한다.

**17** (가)에서는 실리보다 체면과 형식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다)에서는 늘 양산을 쓰고 다니며 기생과 놀고 뜰에서 학을 키우며 무위도식하는 양반의 모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양반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조선 후기의 역사적 사실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글에서 작가가 풍자하는 양반의 모습은 아니다. 즉 양반의 허위성과 폭력성이 핵심이며, 당파 싸움이나 권력 다툼은 이 글의 주요한 풍자 대상이 아니다.

**18** '홍패'를 돈 자루라고 표현한 것은 벼슬에 오른 양반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재물을 수탈하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홍패는 문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주던 증서이지 돈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얼음 위에 박을 굴리면 미끄럽게 잘 굴러가듯이 그렇게 책을 거침없이 유창하게 줄줄 읽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 ② 모자의 먼지를 닦아 내고 세수나 양치질을 해서 외양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 ③ 부자는 신선 같은 양반, 즉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양반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설명만 듣자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 ⑤ 집안이 좋거나 특정 정치 세력에게 잘 보이면 쉽게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부정과 비리가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영상으로 표현하기

본문 44~45쪽

### 개념 확인 **꼭** 보

- 1 복합양식성 2 롱 숏 3 웨이트 숏 4 클로즈업 숏  
5 ㉠ 하이 ㉡ 로 6 ㉢ 7 효과음 8 ㉣, ㉤, ㉥, ㉦, ㉧  
9 ㉨

###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48~55쪽

- 1 ㉣ 2 ㉤ 3 ㉢ 4 ㉤ 5 ㉣ 6 ㉠ 7 출처  
8 ㉢ 9 ㉣ 10 ㉤ 11 ㉣

1 재희네 모둠의 논의에 영상에서 활용할 음악을 선정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실제로 배경 음악 선정은 계획하기 단계가 아니라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거나 편집하기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2 영상 제작 기획안의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아 경고 카드를 받는 모습과 그 학생들의 달라진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 준다고 하였다. 인물 간의 갈등이 펼쳐지는 드라마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해설

- ① 예상 시청자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고 하였다.  
② 공유 매체는 '우리 학교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하였다.  
③ 영상의 주제와 기획 의도, 내용을 보면 영상을 통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 안내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영상의 기획 의도는 학교에서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모두가 규칙을 지킬 때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3 기획 의도는 영상을 구성하는 시각적, 청각적 요소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오답 해설

- ①, ③은 영상을 구성하는 청각적 요소에 해당하고, ④, ⑤는 영상을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4 S# 12에 쓰인 자막은 이 영상의 제목인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이다. 학교에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은 경고 카드가 나오는 장면에서 자막과 대사로 제시되었다.

### 개념 플러스

#### 스토리보드의 역할

- 스토리보드대로 촬영을 진행하면 촬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촬영 장면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스토리보드를 활용하면 촬영 단계에서 제작진들의 소통이 원활해짐.
-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한 스토리보드에 맞춰 촬영하면 영상의 주제와 목적이 잘 드러나게 제작할 수 있음.
- 미리 촬영할 장면을 구체화하고 해당 장면에 들어갈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계획함으로써 촬영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음.

5 소품은 촬영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촬영하는 도중에 소품을 제작하게 되면 촬영 시간이 지연되거나 촬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6 편집을 할 때는 영상의 주제와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장면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막의 글씨체와 크기, 색깔과 위치 등을 선택하여 넣어야 장면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

#### 오답 해설

- ㉠. 중영 자막에는 제작진의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다. 영상을 제작한 전 과정을 자막으로 보여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효과음은 장면을 더 실감 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이고, 배경 음악은 장면의 분위기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이므로 둘 다 영상의 내용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7 영상을 편집할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저작권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제시된 장면은 로 앵글이 아니라 아이레벨 앵글로 촬영한 것이다. 아이레벨 앵글은 대상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눈높이에서 대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객관적인 느낌을 준다. 로 앵글은 카메라가 대상보다 낮은 위치에서 대상을 올려다보듯이 촬영하는 것이다.

#### 오답 해설

- ①, ③ 얼굴만 크게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클로즈업 숏임을 알 수 있다. 클로즈업 숏은 인물의 표정을 생생하게 보여 줄 수 있어서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적절하다.  
④ 자막을 보면 비속어가 들어갈 자리에 'x' 표시를 하여 비속어를 노출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장면은 카메라와 대상의 각도가 수평을 이루는 아이레벨(눈높이) 앵글로 촬영한 것이다.

9 대사는 사건을 전개하고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청각적 요소이다. 대사가 나온다고 해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10 영상을 제작한 후 공유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두루 살펴 보아야 한다. 영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확인하여 타당한 비판을 담고 있다면 영상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11 배경 음악은 장면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배경으로 넣는 음악으로, 인물의 등장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56~57쪽

- 1 ㉤ 2 ㉢ 3 ㉤

1 영상 제작 기획안은 영상 제작을 위한 첫 단계인 계획하기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다. 영상 제작을 위한 전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영상의 주제, 기획 의도, 영상을 공유할 매체, 영상 제작에 필요한 역할 분담 등을 정한다. 영상을 구성할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는 계획하기의 다음 단계인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단계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2 대사는 인물들이 실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청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자막은 화면에 들어가는 글자로 시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 ② 그림 역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 ④, ⑤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는 카메라로 대상을 촬영할 때, 어떤 곳을 어떤 앵글로 찍을지 정하는 것이므로 시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3 영상에 사용하는 배경 음악의 종류가 꼭 다양할 필요는 없다. 배경 음악을 선정하는 기준은 음악이 영상의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내는지, 각 장면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지 등이다.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배경 음악을 사용하였느냐는 필요한 점검 기준이 아니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59쪽

1 ⑤    2 ⑤

1 '효과'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로, <보기>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 들어갈 '효과'의 뜻이다. 두 번째는 '소리나 영상 따위로 그 장면에 알맞은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실감을 자아내는 일'로, <보기>의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갈 '효과'의 뜻에 해당한다.

2 '편집(編輯)'에 쓰인 한자 '편(編)'은 '엮다'라는 뜻이다. '편곡(編曲)'은 '지어 놓은 곡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꾸미거나 다른 악기를 쓰도록 하여 연주 효과를 달리하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곡'을 뜻하는 단어로, '편곡'에 쓰인 한자 역시 '엮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편리(便利)'는 '편하고 이로우며 이용하기 쉬움'을 뜻하는 단어로, 한자 '편(便)'은 '편하다'라는 뜻이다.
- ② '편파(偏頗)'는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뜻하는 단어로, 한자 '편(偏)'은 '치우치다'라는 뜻이다.
- ③ '편견(偏見)'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뜻하는 단어로, 한자 '편(偏)'은 '치우치다'라는 뜻이다.
- ④ '편법(便法)'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뜻하는 단어로, 한자 '편(便)'은 '편하다'라는 뜻이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62~63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④    05 ①    06 음료  
수 마시는 장면을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다.    07 ①

01 제시된 매체는 모두 영상 매체이다. 영상 매체는 문자, 이미지 등의 시각적 요소와 소리, 음성 등의 청각적 요소, 그리고 동영상 등의 시청각적 요소 등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된다(ㄹ). 따라서 시각적 요소나 청각적 요소만 사용하여 제작되는 매체에 비해 내용을 풍부하고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으며 현장감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ㄱ).

**오답 해설**

- ㄴ. 영상 매체는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청각적 요소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 ㄷ. 제시된 영상 매체를 보면, 맛집 탐방, 여행 영상 일기, 팬케이크 만들기 등 일반인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재로 제작된 것들이다.

02 편집하기는 영상 제작 과정 중 '촬영하기' 다음에 이루어지는 단계로, 촬영한 영상에 시각적 요소인 자막, 청각적 요소인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 등을 넣고 영상을 자르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오답 해설**

①은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②는 계획하기, ③은 편집하기, ⑤는 촬영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03 영상 속 주요 장면을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정리한 것을 스토리보드라고 한다. 스토리보드에는 촬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들을 작성한다. 영상 제작 일정과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작성하는 영상 제작 기획안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오답 해설**

- ① 스토리보드는 촬영을 준비하거나 진행할 때 제작진이 소통하는 도구로, 촬영하기 이전 단계에서 작성된다.
- ③, ⑤ 스토리보드에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 모두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만으로도 영상에 들어갈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④ 스토리보드는 영상으로 제작할 주요 장면을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정리한 계획표를 의미한다.

04 S# 3, 5, 8에 등장하는 경고 카드는 스토리보드상에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연극자가 직접 경고 카드로 분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활용하여 경고 카드를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05 ①은 학교 복도를 소란스럽게 뛰어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에서 다급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넣은 대사로 볼 수 있다. '비켜! 비켜!'라는 대사만 가지고 학생들 간의 갈등을 시청자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렵다.

**오답 해설**

- ② 로 앵글은 카메라를 대상보다 낮은 곳에 위치시켜 촬영하는 것이다. 로 앵글을 사용하면 경도 카드가 크고 강하게 보여 시청자가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
- ③ 클로즈업 샷으로 촬영하면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대상이 크게 보인다. 클로즈업 샷으로 음료수 캔을 크게 보여 주면 학생이 캔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음을 부각할 수 있다.
- ④ 학생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 주되, 실제 영상에 비속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 하는 효과음을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하이 앵글은 카메라를 대상보다 높은 곳에 두고 촬영하는 것이다. 하이 앵글을 사용하면 학생들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6 [서술형]** 학생이 음료수를 마실 때 실제 음료수를 마시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넣으면 음료수 마시는 장면을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다.

**07** S# 9~12는 학교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던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 음악도 밝고 희망차고 경쾌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 본문 70~75쪽

**01** ②   **02** ⑤   **03** ①   **04** ④   **05** ④   **06**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희망과 꿈을 볼 수 있다.

**07** ④   **08** ①   **09** 글 읽기만 좋아하고 경제적으로는 무능력한 양반은 문제가 있다.   **10** ⑤   **11** ④   **12** ③

**13** 작가는 권력을 남용하여 온갖 재물을 수탈하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14** ②   **15** ①   **16** ⑤   **17** ⑤

**18** ②   **19** ②   **20** 클로즈업, 학생의 입을 화면에 크게 나타내어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21** ①

**01** (가)의 시인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만 환하게 빛나는 별의 특성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건네고 있다.

**02** (나)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입과의 이별을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고 있으나 당신(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태도는 보이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는 ‘먼 훗날’ 당신(입)이 찾으시면 / 그때에 내 말이 ‘잇었노라’와 같이 각 행이 3음보로 반복되는 율격이 나타난다. <보기>에서도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이오 /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와 같이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난다.
- ② (나)의 2행에 ‘내’, <보기>의 3행에 ‘나’를 통해 시의 화자가 걸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나)의 화자가 먼 훗날 당신을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현재 화자와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고, <보기>에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입’이라는 표현에서 입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④ (나)의 ‘잇었노라’는 당신을 잊지 못하는 간절한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기>에는 반어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03** (가)에서는 ‘별들’, ‘어둠’, ‘대낮’, ‘사람들’ 등의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나)에서도 ‘당신’, ‘잇었노라’ 등의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나)에만 해당하는 설명으로, (나)의 화자는 먼 훗날 ‘당신’과 만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는 밝음과 어둠의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청각적 심상이 쓰이지 않았다.
- ⑤ (가)와 (나) 모두 밝은 느낌을 주는 시어를 나열하지 않았다.

**04** 밝고 환한 ‘대낮’을 ‘어둠’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다. 하지만 그 표현 안에는 대낮처럼 밝은 사람들, 즉 걱정거리 없이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을 꾸거나 희망을 품을 일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어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겉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아 표현하는 방법은 역설이다. 부정적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비판하는 것은 역설이 아니라 풍자에 해당한다.

**05** ㉠은 입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적 표현이다. ㉡에서도 전학 간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네가 그리운 건 아니야.’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은 역설, ②는 풍자, ③, ⑤는 비유를 활용하여 개성적인 표현을 만든 예이다.

**06 [서술형]** ‘지금 어둠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뜻하고, ‘별들이 보인다’는 꿈과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므로 ㉡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꿈과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 시의 주제이다.

**07** (가)에서는 마지막 행인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둠’에 역설적 표현이 쓰였다. (나)에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아내의 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을 풍자의 방법으로 비판하고 있다.

**08** ‘별’은 어두운 밤에만 빛나는 존재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품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상징한다.

**09 [서술형]** 아내는 관공도 못 값는 처지의 남편을 비꼬며 양반의 경제적 무능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작가는 아내의 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10 평민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또는 평민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지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부자인 평민이 가난한 양반의 신분을 사는 모습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는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④ (가)에서 양반은 집이 몹시 가난해서 여러 해 동안 관아에서 곡식을 꾸어다 먹었는데 이를 갚지 못해 감옥에 갈 처지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가난한 사람은 관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과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몰락한 양반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부자에게 신분을 팔아 평민이 된 양반이 평민 행세를 하며 벼기지를 쓰고 짐방이를 입고 나온 것과 자신을 소인이라고 낮춰 부르는 것에서 신분에 따라 복장과 호칭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11 (라)의 부자는 (다)의 첫 번째 매매 증서에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만 나열되어 있자 이에 실망하여 군수에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증서를 고쳐 달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부자가 (다)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아내가 비판하는 양반의 모습은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 무능한 모습으로, 이는 (다)에서 양반은 '손에 돈을 쥐어서는 안 되며 쌀값을 물어서도 안 된다.'라고 한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의 양반은 그동안 꾸어다 먹은 관곡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부자가 관곡을 갚아 줄 테니 양반 신분을 넘겨 달라고 하자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분을 팔았다. 따라서 양반이 신분을 판 구체적인 이유는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군수가 작성하겠다고 한 양반 매매 증서는 (다)와 (마)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 ⑤ (다)는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을 담은 매매 증서이고, (마)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특권을 담은 매매 증서이다.

12 군수는 나중에 소송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양반 신분을 사고판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매매 증서의 내용과 부자가 양반 되기를 포기하는 결말을 통해 군수는 부자가 양반 신분이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수가 부자가 양반이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부자를 도와주고자 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서술형] ㉔는 문과에 급제하면 받는 흥패만 있으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며 흥패를 돈 자루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는 양반이 권력을 남용하여 온갖 재물을 수탈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이 글을 쓴 작가 박지원은 선비는 아무리 가난해도 선비의 본분을 잊지 말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절개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선비는 양반을 말하는 것으로, 양반이 양반다워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양반이 평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이 글에서도 신분 제도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거나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양반이 가난 때문에 신분을 팔고 평민 행세를 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며 조롱하는 부분에서 양반이 이익을 위해 신분을 매매한 행동을 개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④ (마)에서 양반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고 특권을 남용하여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무위도식하며 개인의 욕망만 채우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 ⑤ (다)에서 겉치레와 허례허식에 매여 있는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여 양반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절개를 갖추는 데는 힘쓰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15 (가)는 영상 제작 기획안으로 영상 제작의 첫 단계인 '계획하기' 단계에서 작성된다. (나)는 '계획하기'의 다음 단계에서 작성하는 스토리보드이다.

16 (가)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해당한다. 배경 음악 목록을 정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스토리보드 작성하기'나 '편집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17 (가)의 내용 항목과 (나)의 S# 2, 4, 7을 보면, 이 영상의 기획 의도는 학교생활 수칙을 위반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ㄷ), 학교생활 수칙을 지켜 모두가 행복해진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학교생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일깨우기 위한 것(ㄹ)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ㄱ, ㄴ. 학교생활 수칙의 제정에 관한 내용이나 학교생활 수칙을 위반할 때의 처벌 규정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 S# 1에서는 학교 복도의 전체 모습이 보이게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가 먼 롱 샷이 들어가야 한다. S# 12에서는 학생 모두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 앵글이 들어가야 한다.

19 S# 3, 5, 8은 경고 카드가 등장하여 학교에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안내하는 장면으로, 경고음을 효과음으로 사용하여 경고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S# 2에서는 풀 샷에서 클로즈업 샷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아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S# 3, 5, 8에서 경고 카드를 로 앵글로 촬영하면 경고 카드가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
- ④ S# 7의 자막에는 'x' 표시를, 효과음에는 '빠-' 소리를 사용하여 비속어의 노출을 막고 있다.
- ⑤ S# 9~11은 웨이스트 샷으로 촬영하여 학생들의 상반신을 화면에 담고 있다.

20 [서술형] 찡그린 채 대화하는 학생의 입 모양을 화면에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클로즈업 샷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클로즈업 샷을 활용하여 학생의

입을 화면에 크게 나타내면 학생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강조하여 보여 줄 수 있다.

**21** 이 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주제를 통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신나고 활기찬 음악보다는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배경 음악이 더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시를 자막으로도 제시하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③ 시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고려할 때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따뜻한 목소리로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특성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이미지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지금 대낮인 사람들'과 '지금 어둠인 사람들'은 대조적인 의미로 쓰인 시구이므로 대낮인 사람들과 어둠인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되도록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다.

**서술·논술형 문제** 본문 76~77쪽

- 01** ㉠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희망과 꿈을 볼 수 있다. ㉡ 현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 없는 마음 /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02** ㉠ 역설, '대낮'과 '어둠'이라는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반어,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잊었노라'라고 정반대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 03** • 표현 방법: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도둑놈'에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의 방법이 쓰였다. /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도둑놈'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풍자의 방법이 쓰였다.  
• 작가의 의도: 백성을 착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비판한다.
- 04** ㉠ 영상 속 주요 장면을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정리한 계획표 ㉡ 촬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기획 의도에 맞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 05**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 비속어 대신 아름다운 말을 쓰는 모습
- 06** ㉠ 경고 카드의 위압적이고 강한 모습을 부각할 수 있다. ㉡ 학생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다.

**평가 요소** 시의 주제 파악하기

**01** (가)에서 '지금 어둠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뜻하고 '별'은 꿈과 희망을 뜻하므로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는 표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에 처한 사람들만이 꿈을 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나)의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는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다고 말하는 것이므로 현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 모두 적절한 내용을 서술한 경우	10점
㉠, ㉡ 중 하나만 적절한 내용을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시에 쓰인 개성적인 표현 방법 파악하기

**02**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둠'다는 '대낮'과 '어둠'이라는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걱정거리가 없이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보지 못해 미래가 어둠'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은 역설이다. '잊었노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 ㉡ 모두 적절한 내용을 서술한 경우	10점
㉠, ㉡ 중 하나만 적절한 내용을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풍자적 표현에 담긴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03** 부자는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도둑놈'은 양반을 빗대어 나타난 비유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양반의 부정적인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풍자적 표현에 해당한다. 작가는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괴롭히는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표현 방법과 작가의 의도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표현 방법과 작가의 의도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스토리보드의 뜻과 역할 이해하기

**04** 스토리보드는 촬영을 위해 영상 속 주요 장면을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정리한 계획표로, 그 안에는 영상을 구성할 시각적, 청각적 요소도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따라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한 후 촬영에 임하면, 제작진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져 촬영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본래의 기획 의도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 모두 적절한 내용을 서술한 경우	10점
㉠, ㉡ 중 하나만 적절한 내용을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스토리보드의 내용 파악하기

**05** 학생들이 달라지기 전의 모습은 S# 4와 S# 7에 제시되어 있고, 학교에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의 내용은 S# 5와 S# 8에 자막과 대사로 제시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즉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지 않던 학생들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고, 비속어를 사용하던 학생들이 비속어 대신 아름다운 말을 쓰는 모습으로 학생들의 달라진 모습을 촬영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의 내용 두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의 내용 두 가지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영상을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의 효과 이해하기

**06** 로 앵글은 카메라가 낮은 위치에서 대상을 올려다보는 각도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 카드의 모습에서 위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하이 앵글은 카메라가 높은 곳에서 대상을 내려다보는 각도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체 모습을 조망하면서 모두가 한눈에 보이도록 촬영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와 ㉢를 사용한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와 ㉢를 사용한 효과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 2 슬기로운 독서, 계획적인 발표

### (1) 능동적으로 읽기

본문 80~81쪽

**개념 확인** **꼭**

- 1 ① 점검 ② 능동적 2 × 3 ○ 4 ④ 5 ②  
6 ② 7 ① 계획 ④ 효율성 ⑤ 재구성

**이해 + 탐구** 응용 문제

본문 84~91쪽

- 1 ⑤ 2 ⑤ 3 ① 4 ③ 5 ② 6 ⑤ 7 ④  
8 ② 9 ④ 10 ⑤ 11 ⑤ 12 ① 13 ②  
14 ④ 15 ⑤

**1** 첫 장면에 나오는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준서의 읽기 목적은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친구에게 소개하기’임을 알 수 있다.

**2** 글의 주제나 글쓴이의 주장 등에 관한 것은 글을 읽은 후에 점검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글을 읽기 전에는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고 적절한 읽기 방법을 생각하여야 한다.  
③ 글의 제목과 소제목, 그림이 있는 경우라면 그림 등을 읽기 전에 미리 훑어보아야 한다.  
④ 배경지식을 떠올리며 글의 내용에 대해 예측해 보는 것이 좋다.

**3** 준서가 글쓴이 소개를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과정은 나와 있지 않다.

**4** 작품이 창작된 시기는 화가의 활동 시기로 보아 1600년대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려진 연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준서는 문맥을 통해 낯선 단어의 뜻을 짐작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고 단어 기록장에 써 놓아야겠다고 하였다.

**6** ④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학자들은 대상을 실물에 가깝게 표현한 페르메이르가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페르메이르가 해당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니다.

**7** ⑤에는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발명 시기가 나와 있지 않다.

**8** 준서는 글을 읽기 전에 이 그림을 그린 비결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자신의 예측이 맞았는지 내용을 확인하였다.

9 그림 1이 그림 2보다 이전 시대에 사용된 카메라 오브스쿠라인 것은 맞지만, 그림 2가 더 발전된 형태에 해당한다.

10 이 글은 페르메이르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의 그림이 대상을 얼마나 실물처럼 표현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그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는 것이 페르메이르가 도구의 도움 없이 그림을 그렸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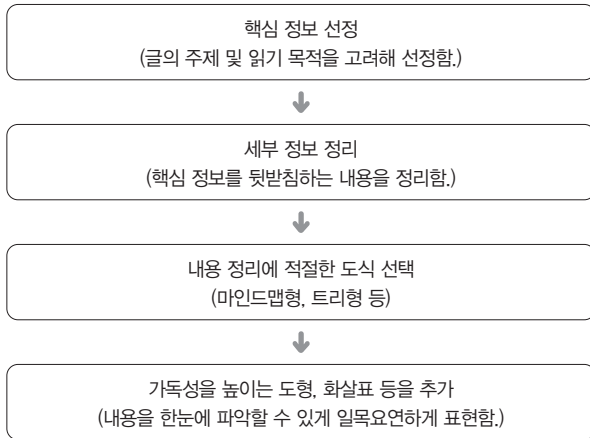
11 글쓴이는 명암법이나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사용은 작품 완성을 도운 기법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활용이 작품을 훌륭하게 만든 여러 요인 중 가장 사소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12 카메라 오브스쿠라와 명암법은 둘 다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의 탄생에 영향을 끼친 창작 기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발명과 명암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 정보를 전달하는 글처럼 새로운 정보가 많이 나오는 글을 읽고 난 후에는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 구조도를 정리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개념 플러스**

**내용 구조도 그리는 방법**



14 칠실파려안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인물이 누구인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를 아우르는 읽기 과정 전체에서 자신이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조정하여 보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92~97쪽

- 1 ⑤    2 ②    3 ③    4 ③    5 ⑤    6 ②    7 ⑤  
8 ⑤    9 ②

1 과제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사례 조사하기'라는 것을 고려할 때 '방관자 효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주제의 글은 과제 상황과 독자의 읽기 수준에 적절하다.

2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쓴이의 관점을 추론하는 것은 읽는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해당한다.

3 '이때 타인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를 통해 긴급 상황이라고 느끼는 것과 타인의 반응 여부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방관자 효과와 다원적 무지의 개념,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과 이유는 나와 있지만, 방관자 효과와 반대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긴급 상황에서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책임감이 감소하여 방관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제시되어 있지만, 사람의 수에 따라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는 빈도가 정비례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 내용 구조도를 바탕으로 할 때 방관자 효과의 유래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7 방관자 효과 연구가 주는 교훈은 누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 긴급 상황에서 아무도 돕지 않아서 자신도 무정한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교훈을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타인의 반응과 무관하게 자신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자는 결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개념 플러스**

**방관자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

- 도움을 줄 특정 인물을 지목하기
-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기
- 각자 책임 의식을 갖기

8 글을 읽다 보면 뜻을 모르는 낯선 단어를 볼 수 있다. 바로바로 사전을 찾아보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번거롭고 읽기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으므로 문맥을 통해 의미를 짐작하거나, 메모해 두었다가 읽기가 끝난 후 찾아보는 것이 좋다.

9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관점을 담은 글을 쓴다는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읽을 글을 선정하고 있다.

1 ① 2 ④

1 '망각'은 '어떤 사실을 잊어버림.'이라는 뜻이고, '부과'는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이라는 뜻이므로 ㉠과 ㉡ 각각의 문장에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 삭제: 깎아 없애거나 지워 버림. / 부여: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줌.
- ㉣ 소멸: 사라져 없어짐. / 전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줌.
- ㉤ 소실: 사라져 없어짐. 또는 그렇게 잃어버림. / 전담: 어떤 일이나 비용의 전부를 도맡아 하거나 부담함.
- ㉥ 전제: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 부담: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짐. 또는 그런 일.

2 '질감'은 '재질의 차이에서 받는 느낌'을 의미하는 단어로 '물건의 무거운 느낌'을 뜻하는 '무게감'과는 의미가 달라 바꾸어 쓸 수 없다.

**소단원 핵심 문제**

01 ⑤ 02 ⑤ 03 ② 04 질문을 통해 앞으로 설명할 내용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05 ②  
06 ④ 07 ② 08 ③ 09 ⑤ 10 ④ 11 ⑤

01 만화의 내용을 통해 학생의 읽기 목적은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친구에게 소개하기'이고, 나와 친구들의 읽기 수준을 고려해 글을 선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술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흥미롭게 여길 내용인지에 대해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다.

02 글에 나온 단어의 의미와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은 글을 읽는 중에 할 수 있는 점검·조정에 해당한다.

**개념 플러스**

**능동적 읽기 vs 수동적 읽기**

	능동적 읽기	수동적 읽기
개념	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읽기	텍스트의 글자를 단순히 따라가는 읽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하기</li> <li>• 메모하기</li> <li>• 예측하고 추론하기</li> <li>• 비판적으로 생각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파악하기</li> <li>•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li> </ul>
장점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읽은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음.	글을 읽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가벼운 읽기로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음.

03 이 글의 읽기 목적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친구에게 소개하기'이므로, '명암법'이 최신의 창작 기법이 아니라거나 현대의 화가들이 폭넓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나)를 제외하고 읽는 읽기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제시된 그림을 보고 그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임을 예측하고, 읽는 중에 자신이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는 읽기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읽기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③ 단어의 뜻을 문맥을 통해 짐작하며 읽고 있으므로 적절한 읽기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④ 읽는 중에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정리하고 읽고 있으므로 적절한 읽기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⑤ (다)의 마지막 문장에는 '빛을 측면에서 들어오게 해서 명암이 뚜렷해지도록 했기 때문에'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측면에서 빛이 들어오면 명암이 뚜렷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나)의 마지막 문장인 '화가가 볼 때 대상의 측면에서 빛이 들어오면, ~ 잘 표현할 수 있는데'를 추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04 [서술형] 독자는 물음에 대한 답을 떠올려 볼 수 있어 이어질 내용에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게 된다.

05 (나)와 (다)에는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표현법인 '명암법'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또다른 표현 기법은 (나)와 (다)만을 읽고서는 확인할 수 없다.

06 소제목은 몇 개의 문단을 포괄하는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소제목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소제목은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는 단서가 된다.

07 (라)에 따르면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사용하면 실물처럼 생생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므로 카메라 오브스쿠라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보이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라)에 따르면 페르메이르가 살았던 시기에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페르메이르가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대중화에 기여했는지의 여부는 나와 있지 않다.
- ③ 페르메이르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에 부정적이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마)에는 페르메이르의 그림에 사진 같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사진으로 찍었을 때 카메라 오브스쿠라 이용의 효과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마)에 따르면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에서 머릿수건이 흐릿해 보이는 것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활용했다는 근거이다.

08 (다)를 통해 카메라 오브스쿠라는 크기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화가들이 폭넓게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활용법이 복잡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

09 <보기>는 글을 읽고 난 후 학생이 궁금했던 점을 찾아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과정은 읽은 후에 점검·조정하는 과정

에 해당하며 이러한 탐색을 통해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글을 읽은 것에 해당한다.

- 10 '방관자 효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글의 제목은 질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는 것은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독자들이 글의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제목이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독자들이 개별적으로 방관자 효과의 대처 방법을 탐색하기를 바라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11 '다윈적 무지'는 집단적인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안전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본성과는 무관하다.

## (2) 점검하며 발표하기

### 개념 확인 **극복**

본문 106~107쪽

- 1 주제, 목적, 청중    2 신뢰성, 주제 적합성    3 말하기 불안  
 4 ×    5 ○    6 경험    7 완벽    8 점검, 조정  
 9 ○    10 ×    11 ⑤

###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110~122쪽

- 1 ④    2 ④    3 ③    4 ②    5 ④    6 ②    7 말하기 불안에 잘 대처할 수 있다. /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 발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8 발표 연습을 촬영한 동영상  
 9 ①    10 ②    11 ②    12 ①    13 ⑤  
 14 ①    15 ④    16 ③    17 ①    18 ④    19 ②  
 20 발표 내용 예측하기

- 1 은수네 모둠이 발표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발표의 어려움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2 자료를 수집할 때는 발표 주제, 목적, 청중의 수준이나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발표 시간이나 분량을 고려할 때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료 수집의 용이성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3 발표 개요 초안을 볼 때 은수네 모둠은 카페인 함유 식품을 섭취할 때의 유의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전달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 4 대화에서 주영이가 카페인의 부작용을 먼저 말하면 친구들이 카페인의 위험성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이어질 정보를 더 집중해서 들을 것 같다고 발표 순서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 개념 플러스

#### 청중의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
- 짧은 문장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 청중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듯이 말하기
- 질문, 박수, 투표 등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유발하기
- 청중이 이해하기 쉽거나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을 제시하기

- 5 은수의 '발표를 친구들이 쉽게 이해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주영과 상은의 말에서 ㄴ, ㄷ, ㄹ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 오답 해설

- ㄱ. 은수네 모둠의 대화에서 발표할 때 말의 속도를 조절해야겠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ㄴ. 은수네 모둠의 발표 목적은 '카페인을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의견보다는 사실 위주로 발표문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사실이나 의견 중 어떤 것을 위주로 발표문을 구성해야 하는지는 발표의 주제나 목적, 청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6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러한 불안은 누구나 겪는 문제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7 [서술형] 발표 전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해 보면 친구들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발표할 수 있게 된다.

- 8 발표 전에 청중을 앞에 두고 연습을 해 보면 좋지만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자신이 발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고, 그것을 보면서 보완할 점을 찾아보면 된다.

- 9 은수네 모둠의 발표에는 '카페인의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해설

- ② 커피와 콜라의 공통점은 '주변에서 쉽게~주의해야 할 식품이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카페인 섭취와 빈혈의 관계는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칼슘이 부족한 경우 생기는 문제는 '칼슘이 부족하면~키가 잘 크지 않지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는 '신경이 지나치게 자극되면~불면증이 생깁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0 은수는 발표를 통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이나 정서 불안, 빈혈 등이 생길 수 있고 성장도 저해된다고 하였으므로 카페인의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

- 11 전체 청소년이 아닌 평소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퍼센트가 하루 3병 이상 마신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은수가 계획했던 발표 순서를 청중의 호응에 따라 변경했는지는 발표만 듣고는 알 수 없다.

13 우리 반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다고 답한 친구들의 약 29퍼센트가 하루에 고카페인 음료를 3병 이상 마셔 봤다고 답했다. 여기에 하루 최대 2병을 마셔 봤다고 답한 학생들을 합치면 절반 정도가 된다. 따라서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친구들의 절반 정도는 하루에 고카페인 음료를 2병 이상 마셔 본 경험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14 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량은 체중 1킬로그램(kg)당 2.5밀리그램(mg)이므로 체중이 60킬로그램(kg)인 경우 하루 최대 섭취량은 150밀리그램(mg)이다. 카페인 함량이 80밀리그램(mg)인 음료의 경우 2병을 마시면 160밀리그램(mg)이 되므로 기준을 넘기지 않고 섭취하기 위해서는 하루 1병만 마실 수 있다.

15 발표의 정리 부분에 발표를 준비하며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안내하면 발표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고, 청중은 발표를 듣고 더 궁금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16 청소년에게 권장되는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 양을 초과해서 섭취하면 불면증이나 빈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카페인을 섭취할 때는 빈도보다 총섭취량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은수네 모듬은 우리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카페인 섭취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나 학생과의 인터뷰는 하지 않았다.

18 은수는 발표 중에 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량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발표자가 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량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는 승현이의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발표를 듣기 전에는 그림이나 제목 등을 토대로 어떤 내용인지 예측해 보는 것이 좋다.
- ② 발표를 들을 때는 그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다.
- ③ 발표자가 설명한 것 이외에 더 궁금한 점을 떠올리며 듣는 것은 적극적인 듣기에 해당한다. 발표자가 고카페인 식품의 예로 커피, 콜라, 초콜릿 등을 예로 들었으나 다른 식품이 더 없는지 떠올려 볼 수 있다.
- ⑤ 자신의 생활에서 발표의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듣기 과정을 효과적으로 점검·조정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19 발표를 점검하고 평가할 때, 발표 내용이 반드시 새롭고 재미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익숙한 내용의 발표일지라도 발표의 목적에 맞게 잘 이루어 졌으면 훌륭한 발표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 발표를 들을 때는 자신이 발표를 잘 듣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조정하고,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듣기 전략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듣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 첫 단계로 발표를 듣기 전에 발표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듣기 전략이 될 수 있다.

**적용+성찰 | 응용 문제**

본문 123~127쪽

- 1 ③
- 2 ①
- 3 ②
- 4 ③
- 5 ②
- 6 ④
- 7 ③
- 8 ①
- 9 ④

1 발표 목적이나 발표 주제에 따라 준비한 내용이 청중에게 교훈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고려하며 발표를 계획할 필요는 없다.

2 발표의 주제를 고려할 때 당류 섭취의 역사에 관한 내용은 불필요하다.

3 청중의 반응에 따라 발표 내용이나 순서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따라 미리 계획된 발표 내용이나 순서를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발표는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를 전제로 한 말하기의 하나로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청중과의 상호 작용이 중요하다. 청중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거나 박수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5 발표자는 발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한다. 이때 활용하는 매체는 발표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그림이나 도표, 영상 자료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매체 자료를 판단할 때는 최신의 기술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매체인지,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6 자료를 가리키거나 ‘첫째’, ‘둘째’ 등을 말할 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손동작 사용은 발표에 도움을 준다.

**오답 해설**

- ① 발표할 때는 화면만 쳐다보면서 읽지 않도록 주의하고 청중과 시선을 마주치며 발표하는 것이 좋다.
- ② 발표 내용에 어울리는 적절한 표정을 짓는 것은 발표에 도움이 된다.
- ③ 중요한 단어는 청중에게 잘 들리도록 크게 말하거나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것이 좋다.
- ⑤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좋은 발표 태도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7 아무리 긴장된 상황이라도 발표를 할 때는 청중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 좋다.

- 8 발표를 할 때는 청중과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9 발표문 작성은 발표 이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서 발표만 듣고는 발표자가 발표문 작성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이는 발표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129쪽

1 ① 2 ②

- 1 문장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는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이라는 의미의 '유발'이, ㉡에는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이라는 뜻의 '함유'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유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 내포: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③ 제약: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 또는 그 조건. / 제공: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  
 ④ 제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 제시: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  
 ⑤ 통제: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함. / 섭취: 생물체가 양분 따위를 몸속에 빨아들이는 일. 또는 좋은 요소를 받아들임.

- 2 ①, ③, ④, ⑤에는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이라는 뜻의 '조정'이 들어가야 하고, ②에는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부림.'이라는 뜻의 '조종'이 들어가야 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32~135쪽

- 01 ③ 02 ② 03 (나),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청중이 이해하기 어렵다. / 발표 목적과 거리가 가장 멀다.  
 04 ⑤ 05 ③ 06 ⑤ 07 ④ 08 ④ 09 너무 큰 부담감, 부족한 자신감 때문에 심하게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10 ④ 11 ㉠,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성장에 해로움. (또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이 생길 수 있음. 12 ⑤ 13 ② 14 ⑤

- 01 은수네 모둠원들은 발표의 주제, 목적, 청중을 고려해 어떤 내용으로 발표문을 구성할지 이야기 나누고 있다. 발표를 위해 수집할 자료의 출처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은수의 첫 번째 말을 통해 예상 청중은 '우리 반 친구들'임을 알 수 있다.  
 ② 은수의 두 번째 말을 통해 은수네 모둠은 '건강을 지키는 법'이라는 대주제를 '카페인을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구체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모둠원들이 기대하는 발표의 효과는 은수의 두 번째 말 중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 줄 수 있을 거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은수네 모둠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주영의 첫 번째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02 (나)는 카페인의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인데, 이는 청중의 흥미를 끄는 역할을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발표의 도입 부분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3 [서술형] (나)는 예상 청중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발표 목적이 올바른 카페인 섭취 방법을 알려 주는 데 있으므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 04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 실태'라는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면 ㉠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05 불면증, 정서 불안, 성장 방해, 빈혈 등의 내용으로 보아 ㉡에는 카페인의 부작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06 (나)에서 모둠원들은 작성한 개요 초안을 발표 주제와 목적을 고려해 수정하고 있다. 개요표는 발표문을 작성하기 위한 설계도에 해당하는데 발표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 07 은수의 첫 번째 말과 주영의 두 번째 말을 통해 은수네 모둠은 청중의 이해도를 고려해 발표 순서를 도입 부분에 안내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 08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불안의 정확한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겪는 상황을 이해하고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 발표 중에 말하기 불안의 정확한 이유를 찾는 것은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 09 [서술형] 첫 번째 문단을 바탕으로 말하기 불안의 의미를 알 수 있다.

- 10 ㉡을 통해서 신체 건강 측면에서 빈혈이나 성장 부진 등의 카페인의 부작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카페인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원리는 이해할 수 없다.

- 11 [서술형] (라)의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키가 잘 크지 않지요.'라는 부분을 바탕으로 카페인 과다 섭취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이 발생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성장 부진을 초래함을 알 수 있다.

- 12 발표자는 많은 학생들이 흔하게 먹는 식품에 카페인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 모른 채 해당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따라서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식품별 카페인 함량을 알아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발표 주제가 '카페인을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이므로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절대로 섭취하면 안 된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 ②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예로 초콜릿을 들고 있으나 이것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 ③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카페인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추론할 수 없다.
- ④ (마)의 '제품 표면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3** 발표 내용은 발표 주제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실생활과 관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제 선정이 발표 과정의 점검 항목은 아니다.

**14** 청중에 따라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발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점검·조정하며 발표하기의 효과라고 볼 수 없다.

**주간·기말 시험 대비**

본문 144~149쪽

- 01 ①    02 ③    03 ①    04 ④    05 ⑤    06 ③  
 07 ④    08 ②    09 ⑤    10 내용 구조도를 그려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11 ③    12 ②    13 ④    14 ③  
 15 ④    16 ③    17 ④    18 ㉠,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량을 체중이 50킬로그램인 청소년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19 ④    20 ④    21 ④

**01** 자신의 읽기 수준보다 높은 글을 선정하면 읽기에 흥미를 갖기 어렵고,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읽기 상황과 수준에 적합한 글을 선정해야 한다.

**02** 글의 전체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단별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글을 읽는 것이 좋다.

**03**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하는 것은 글을 읽는 중이나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② 제목은 글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목과 제시된 그림을 연결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읽기 전 점검·조정 활동으로 적절하다.
- ③ 글을 읽기 전에 갈래를 짐작해 보고, 적절한 읽기 방법을 생각해 보면 효과적인 읽기가 될 수 있다.
- ④ 제시된 그림을 이전에 본 적이 있다면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려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 ⑤ 글의 처음에 그림이 제시되었다면 그림을 관찰하고, 그림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예측해 볼 수 있다.

**04** 명암법은 밝음과 어두움을 잘 대비해서 묘사하는 방법으로, 밝은 부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아니다.

**05** (마)는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종류와 활용법을 설명하는 문단으로, 카메라 오브스쿠라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이 시기의 화가들은 명암법이라는 기법을 널리 사용하였는데'를 통해 페르메이르 외에도 많은 화가들이 명암법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질감은 서로 다른 재료가 주는 느낌을 말하는데'를 통해 질감의 뜻을 알 수 있다.
- ③ (다)에는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와 같은 명작을 탄생시킨 비결이 명암법만이 아니라 '카메라 오브스쿠라'라는 도구의 도움도 있었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라)의 '카메라 오브스쿠라는 카메라의 발명을 이끈 장치'를 통해 카메라 오브스쿠라와 카메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06** 카메라 오브스쿠라가 대상을 실물처럼 그리는 데 도움을 준 장치이므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당시의 화가 중 일부는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07**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밑그림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페르메이르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오답 해설**

- ①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라는 명작의 탄생에는 명암법과 카메라 오브스쿠라 그리고 페르메이르의 노력이 담겨 있다고 하였고, 이 중 명암법이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가 오래도록 사랑받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② 이 글만 읽고서는 페르메이르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만한 작품을 많이 그렸는지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 ③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에는 초점이 맞는 부분도 있고 흐릿한 부분도 있다고만 하였으므로 초점이 맞지 않게 표현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은 알 수 없다.
- ⑤ 학자들은 페르메이르의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08** '으레'는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라는 뜻으로, 문맥을 고려할 때 빈칸에는 '당연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각별하다: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따위가 유달리 특별하다.
- ③ 망연하다: 매우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
- ④ 무관하다: 관계나 상관이 없다.
- ⑤ 여전하다: 전과 같다.

**09** (다)를 바탕으로 할 때 도구나 기술, 기법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화가의 노력 없이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화가의 노력과 도구의 활용이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10** [서술형] 글을 읽고 난 후 알게 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용 구조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1**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정의는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은 (가), ②는 (나), ④, ⑤는 (나),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⑥는 ㉔에서 언급된 ‘판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설명하는 문장으로, 글의 주제를 고려할 때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3** (다)에 따르면 긴급 상황에서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타인이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방관자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평범한 사람도 상황에 휩쓸리면 무정한 방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② 방관자 효과가 타인이 실제로 현장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가 다르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③ 이미 누군가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면 방관자 효과가 발생한다.
- ⑤ 방관자 효과에 관한 연구가 주는 교훈은 평범한 사람도 상황에 휩쓸리면 무정한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4** 발표문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은 자료를 선정하고 조직한 이후에 해야 하는 점점 사항이다.

**15** 중요한 발표이니 완벽하게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말하기 불안은 커질 수 있다.

**16**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 실패는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통해 청중이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는 어렵다.

**17** 발표의 흐름으로 보아 발표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카페인을 올바르게 섭취하자.’라는 당부 말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18 [서술형]** 발표는 청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말하기이므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㉔에서는 체중이 50킬로그램인 청소년을 예로 들어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량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19** 발표는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 실패와 카페인 함유 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등을 다루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면담 인터뷰에 관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20** 발표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발표자는 제품 표면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카페인을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발표 주제를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㉔이다.

**21** 발표를 하며 자신의 발표 과정을 돌아보고 궁금한 점을 떠올릴 수는 있으나 이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항목이라고는 볼 수 없다. 반면에 발표를 들을 때는 궁금한 점을 떠올리는 전략을 활용해야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술·논술형 문제**

본문 150~151쪽

- 01** 라틴어에서 시작됐는데(생겨났는데, 나왔는데 등)
- 02** ㉔ 반대쪽 벽에 바깥 풍경이 거꾸로 비치는(직진하던 빛이 구멍을 통과하면서 교차하여 풍경이 뒤집혀 나타나는)
- ⑥ 볼록 렌즈와 거울
- 03** 위쪽 면에 비친 모습에 종이를 대고 베끼면 밑그림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볼 때 페르메이르도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 04** 우리 반 친구들에게 올바른 카페인 섭취 방법 알리기
- 05** ㉔,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고려할 때 카페인 업무 및 학습 효율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청중의 지식수준을 고려할 때 논문에 실린 내용은 지나치게 전문적이기 때문이다.
- 06** 청중은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발표자는 청중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면서 말할 수 있어서 청중과 소통하며 발표할 수 있었어

**평가 요소 단어의 의미 추론하기**

**01** 글을 읽으며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사전을 찾거나 문맥을 활용해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의미를 파악한 후에 원래 알고 있었던 단어로 바꾸어 써 보는 활동을 해 보면 해당 단어의 의미를 오래 기억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10점
‘말미암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활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5점
‘말미암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활용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메모하기**

**02**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원리는 (나)를 통해,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종류는 (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㉔, ⑥에 들어갈 내용을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㉔, ⑥ 중 하나만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03** 페르메이르의 그림에 밑그림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페르메이르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는 근거가 된다.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많은 화가가 폭넓게 사용하기 시작했으므로 작은 크기의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특성을 함께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페르메이르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이용했다는 근거를 작은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특성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페르메이르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이용했다는 근거와 작은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특성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발표의 목적 이해하기

04 은수네 모듬은 '건강을 지키는 법'이라는 주제를 학급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카페인을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주제로 구체화하였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 즉 발표 목적은 은수의 마지막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발표 주제, 예상 청중을 모두 포함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건강을 지키는 법이라는 구체화되기 전 주제를 서술하거나 정보 전달하기 등 발표 목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자료 선정 이유 파악하기

05 카페인이 업무 및 학습 효율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다룬 자료는 발표 주제와 거리가 멀고, 논문 자료는 예상 청중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전문적이다.

채점 기준	배점
활용도가 가장 떨어지는 자료를 바르게 선정하고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활용도가 가장 떨어지는 자료는 바르게 선정했으나 그 이유를 서술하지 않은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점진·조정하며 발표하기의 효과 이해하기

06 발표는 청중과의 상호 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말하기이므로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청중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말하는 것이 좋다.

채점 기준	배점
청중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발표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모두 문맥에 맞게 서술한 경우	10점
청중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발표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하나만 문맥에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 3 체계적인 음운, 과학적인 문자

## (1) 우리말 음운 체계

본문 158쪽

**개념 확인** **꼭꼭**

- 1 음운 2 ㅏ, ㅑ, ㅓ, ㅕ 3 (1) ○ (2) × (3) ○ 4 ㅍ

**이해 + 탐구** 응용 문제

본문 162~171쪽

- 1 ⑤ 2 길이 3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로 받고 소리가 나는가, 방해로 받지 않고 소리가 나는가?(또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막힘이 있는가, 없는가?)  
 4 ② 5 ③ 6 ⑤ 7 ㄱ, ㄴ, ㄷ 8 ㉠ 앞쪽 ㉡ 뒤쪽  
 9 ② 10 ③ 11 ② 12 혀의 위치가 높다.(또는 혀의 높이가 높다.) 13 ⑤ 14 ⑤ 15 ① 16 ③  
 17 ⑤ 18 ㉠ 비음 ㉡ 코 19 ㉠ ㄱ, ㅈ, ㅊ ㉡ ㅋ, ㆁ  
 20 ④ 21 ④ 22 ② 23 ㅋ

1 '발'은 'ㅂ+ㅏ+ㄹ'로, '뵤'은 'ㅂ+ㅓ+ㅁ'으로 음운이 분석된다. 끝소리인 'ㄹ'과 'ㅁ'만 서로 다르므로,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는 'ㄹ'과 'ㅁ'이다.

**오답 해설**

- ① '말'은 'ㅁ+ㅏ+ㄹ'로, '말'은 'ㅁ+ㅣ+ㄹ'로 음운이 분석되어 'ㅏ'와 'ㅣ'의 차이에 의해 뜻이 구별된다.  
 ② '뵤'은 'ㅂ+ㅓ+ㄱ'으로, '뵤'은 'ㅂ+ㅓ+ㄴ'으로 음운이 분석되어 'ㄱ'과 'ㄴ'의 차이에 의해 뜻이 구별된다.  
 ③ '뵤'은 'ㅂ+ㅓ+ㄹ'로, '뵤'은 'ㅂ+ㅓ+ㄹ'로 음운이 분석되어 'ㄹ'과 'ㅁ'의 차이에 의해 뜻이 구별된다.  
 ④ '발'은 'ㅂ+ㅏ+ㄹ'로, '뵤'은 'ㅂ+ㅓ+ㄹ'로 음운이 분석되어 'ㅏ'와 'ㅓ'의 차이에 의해 뜻이 구별된다.

2 언어를 뜻하는 '말[말:]'의 발음 기호 안에 있는 ':'은 길게 발음하라는 뜻의 장음 부호이다. 즉, 말과의 포유류를 뜻하는 '말'은 짧게 발음하고, 언어를 뜻하는 '말'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 이렇게 소리의 길이는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음운의 역할을 한다.

3 [서술형] ㉠은 모음, ㉡은 자음에 해당한다. 모음은 소리 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로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고, 자음은 소리 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로 받고 나오는 소리이다.

4 음절의 첫소리에 쓰인 'ㅇ'은 소릿값이 없어서 자음이 아니고, 음절의 끝소리에 쓰인 'ㅇ'만 소릿값이 있어서 자음에 해당한다.

다. '나방'의 음운은 'ㄴ, ㅍ, ㅂ, ㅍ, ㅇ'으로 분석되며, 여기에 쓰인 'ㅇ'은 음절의 끝소리로 자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아이'의 음운은 'ㅏ, ㅓ'로 분석된다.
- ③ '길이'의 음운은 'ㄱ, ㅓ, ㅓ, ㅓ'로 분석된다.
- ④ '우산'의 음운은 'ㅇ, ㅏ, ㅓ, ㄴ'으로 분석된다.
- ⑤ '운수'의 음운은 'ㅇ, ㄴ, ㅏ, ㅓ'로 분석된다.

5 'ㅏ'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이고, 'ㅓ'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모음이다.

6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은 이중모음으로, 'ㅓ'는 이중모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ㅐ, ㅑ, ㅓ, ㅕ'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에 해당한다.

7 국어의 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 변화 유무에 따라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로 나뉜다(ㄷ). (총 21개)

**오답 해설**

ㄷ, 'ㅏ'와 'ㅓ'는 이중모음에 해당한다.

8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ㄱ'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모음이고, 'ㅇ'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후설모음이다.

9 발음할 때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하면 'ㅏ'는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저모음, 'ㅓ'는 혀의 높이가 중간쯤에 위치한 중모음, 'ㅇ'는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고모음이다. 따라서 'ㅏ, ㅓ, ㅓ'를 순서대로 발음하면 혀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입은 점점 닫혀진다.

10 원순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 둥글게 오므라지는 모음으로 'ㄱ, ㄴ, ㄷ, ㄱ'의 4개가 있다. <보기>에서 원순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ㄱ'이다.

11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모음은 'ㄱ, ㄴ, ㄴ, ㄱ, ㄱ'이다. 그중 혀의 위치가 낮고 입이 크게 벌어지는 저모음은 'ㅐ'이다. 'ㅐ'는 입술 모양이 둥글게 오므라지지 않는 평순모음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설모음, 저모음, 평순모음에 모두 해당하는 단모음은 'ㅐ'이다.

**오답 해설**

- ① 'ㅏ'는 후설모음, 저모음, 평순모음이다.
- ③ 'ㅑ'는 전설모음, 중모음, 평순모음이다.
- ④ 'ㅓ'는 전설모음, 중모음, 원순모음이다.
- ⑤ 'ㅇ'는 전설모음, 고모음, 원순모음이다.

12 [서술형] 'ㄱ'는 전설모음, 고모음, 평순모음이고, 'ㅇ'는 전설모음, 고모음, 원순모음이다. 'ㅓ'는 후설모음, 고모음, 평순모음이고, 'ㅓ'는 후설모음, 고모음, 원순모음이다. 따라서

'ㄱ, ㄱ, ㅓ, ㅓ'를 발음할 때의 공통점은 혀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이라는 점이다.

13 'ㄱ, ㄱ, ㅓ, ㅇ'은 모두 발음할 때 혀 뒤와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나므로 여린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14 발음할 때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잇몸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ㄴ, ㄷ, ㅌ, ㅌ, ㄹ, ㅏ, ㅓ'이다. 'ㅓ'은 혀바닥과 셴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셴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15 'ㄴ, ㄹ, ㅓ, ㅇ'은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는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② 모두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 ③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자음은 'ㅓ'뿐이다.
- ④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잇몸소리는 'ㄴ, ㄹ'뿐이다.
- ⑤ 'ㄴ, ㄹ, ㅓ, ㅇ'은 모두 자음이므로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다.

16 안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ㄴ, ㄹ, ㅓ, ㅇ'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이다. '물감'에 쓰인 자음은 'ㅓ, ㄹ, ㄱ'으로 그중 'ㄱ'은 안울림소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나무'에 쓰인 자음은 'ㄴ, ㅓ'으로 모두 울림소리이다.
- ② '노랑'에 쓰인 자음은 'ㄴ, ㄹ, ㅇ'으로 모두 울림소리이다.
- ④ '밀림'에 쓰인 자음은 'ㅓ, ㄹ'로 모두 울림소리이다.
- ⑤ '양말'에 쓰인 자음은 'ㅇ, ㅓ, ㄹ'로 모두 울림소리이다.

17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는 파찰음이다. 파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ㅓ, ㅓ, ㅓ'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은 파열음, ④는 마찰음에 해당한다.

18 울림소리는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비음과 유음으로 나눌 수 있다. 비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로 '콧소리'라고도 부르며 'ㄴ, ㅓ, ㅇ'이 비음에 해당한다.

19 ㉠은 성대 근육도 긴장되지 않고 숨도 거세게 나오지 않는 소리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보통의 소리는 예사소리를 말한다. <보기>에서 예사소리로는 'ㄱ, ㅓ, ㅓ'이 있다.

㉡은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면서 나는 소리로, 예사소리에 비해 세고 거친 느낌을 주는 소리는 거센소리를 말한다. <보기>에서 거센소리로는 'ㅋ, ㅓ'이 있다.

20 'ㄱ, ㅓ, ㅓ, ㅓ, ㅓ'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할 때 된소리에 해당한다. 된소리는 발음할 때 성대 근육이 긴장되면서 소리가 나며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준다.

**오답 해설**

①, ③은 예사소리, ②, ⑤는 거센소리에 대한 설명이다.

21 ‘ㅅ’은 예사소리, ‘ㅆ’은 된소리이다. ‘ㅎ’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자음이 아니다.

22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ㄴ’은 예사소리, ‘ㄸ’은 된소리, ‘ㅍ’은 거센소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ㄴ, ㄸ, ㅍ’은 소리의 길 이와는 관련이 없는 자음이다.
- ③ ‘ㄴ, ㄸ, ㅍ’은 안울림소리이다.
- ④ ‘ㄴ, ㄸ, ㅍ’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입술소리이다.
- ⑤ ‘ㄴ, ㄸ, ㅍ’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파열음이다.

**개념 플러스**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1) 코안이나 입안의 울림 여부에 따른 분류

- 울림소리: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는 소리. ‘ㄴ, ㄹ, ㅁ, ㅇ’과 모음이 해당됨.
- 안울림소리: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지 않는 소리. ‘ㄴ, ㄹ, ㅁ, ㅇ’을 제외한 자음이 해당됨.

(2) 성대의 울림 여부에 따른 분류

- 울림소리(유성음):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 울리는 소리. ‘ㄴ, ㄹ, ㅁ, ㅇ’과 모음이 해당됨.
- 안울림소리(무성음): 성대를 진동시키지 않고 내는 소리. ‘ㄴ, ㄹ, ㅁ, ㅇ’을 제외한 자음이 해당됨.

23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여린입천장 소리는 ‘ㄱ, ㅋ, ㆁ’이다. 그중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는 ‘ㄱ, ㅋ, ㆁ’이다. 그중 공기를 세계 내뿜어 숨이 거세게 나오는 거친 느낌의 거센소리는 ‘ㄱ’이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172~173쪽

1 ③ 2 ㉠ 저모음 ㉡ 중모음

1 ‘새’는 [새]로, ‘좁’은 [좁]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각각 [쐐]와 [좁]으로 발음하였다. 이는 예사소리인 ‘ㅅ, ㅆ’으로 발음해야 하는 것을 된소리인 ‘ㅆ, ㅆ’으로 잘못 발음한 것이다.

2 단모음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ㅐ’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이고, ‘ㅑ’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중모음이다. 따라서 ‘ㅐ’와 ‘ㅑ’는 각각 저모음, 중모음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으므로, ‘ㅑ’를 발음할 때는 ‘ㅐ’에 비해 혀의 높이를 더 낮추어 발음해야 한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175쪽

1 ⑤ 2 ②

1 ‘음향’은 ‘물체에서 나는 소리와 그 울림’을 뜻하므로 ㉠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음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나 말소리’를 뜻하므로 ㉡에는 다정한 목소리를 나타내는 ‘음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2 ‘마찰’은 ‘두 물체가 서로 닿아 비벼짐. 또는 그렇게 함.’, ‘이해나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이 충돌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전자의 뜻으로 쓰인 ‘마찰’은 첫 번째 문장의 빈칸에, 후자의 뜻으로 쓰인 ‘마찰’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갈등’은 ‘침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하며 첫 번째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하다.
- ③ ‘방해’는 ‘남의 일을 간섭하고 막아 해를 끼침.’을 뜻하며 제시된 모든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하다.
- ④ ‘분쟁’은 ‘말쟁을 일으키어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을 뜻하며 첫 번째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하다.
- ⑤ ‘파열’은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뜻하며 제시된 모든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부적절하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78~181쪽

- 01 ③ 02 ② 03 ④ 04 ④ 05 (1) 발음할 때의 혀의 높이(위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2) ‘-’는 혀의 위치를 높여서, ‘ㅈ’는 혀의 위치를 중간쯤에 두고, ‘ㅊ’는 혀의 위치를 낮춰서 발음합니다. 06 ③ 07 ⑤ 08 ④ 09 ③ 10 ① 11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하면 ‘ㅑ’는 중모음, ‘ㅐ’는 저모음이므로 ‘ㅑ’를 발음할 때는 입을 보통으로 벌리고 혀의 높이를 중간쯤에 위치시켜 발음하고, ‘ㅐ’를 발음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최대한 낮추어 발음한다. 12 ⑤ 13 ④ 14 ① 15 ② 16 ④ 17 <보기>에 쓰인 자음은 ‘ㄴ, ㄹ, ㅅ’이고, 이 자음들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잇몸소리로, 발음할 때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소리 나는 공통점이 있다. 18 ④ 19 ⑤ 20 ② 21 ④ 22 ②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소’는 ‘ㅅ’이라는 자음과 ‘ㅓ’라는 모음, 이렇게 두 개의 음운이 모여 이루어진 음절이다.

**오답 해설**

- ㄱ.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 ㄴ. 음운의 종류는 모음, 자음, 소리의 길이가 있다.

02 ‘물’은 ‘ㅁ+ㅍ+ㄹ’로, ‘문’은 ‘ㅁ+ㅍ+ㄴ’으로 음운이 분석된다. 두 단어의 음운은 끝소리인 ‘ㄹ’과 ‘ㄴ’만 서로 다르므로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는 ‘ㄹ’과 ‘ㄴ’이다.

**오답 해설**

- ① ‘불’은 ‘ㅂ+ㅍ+ㄹ’로, ‘물’은 ‘ㅁ+ㅍ+ㄹ’로 음운이 분석되므로, 음운의 개수가 각각 3개씩이다.
- ③ ‘물’은 ‘ㅁ+ㅍ+ㄹ’로, ‘말’은 ‘ㅁ+ㅍ+ㄹ’로 음운이 분석되므로, 가운뎃소리인 ‘ㅍ’와 ‘ㄹ’에 의해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 ④ ‘말’은 ‘ㅁ+ㅍ+ㄹ’로 음운이 분석되며 ‘ㅁ, ㄹ’은 자음, ‘ㅍ’는 모음이다. ‘문’은 ‘ㅁ+ㅍ+ㄴ’으로 음운이 분석되며 ‘ㅁ, ㄴ’은 자음, ‘ㅍ’는 모음이다. 따라서 둘 다 자음 2개와 모음 1개로 이루어져 있다.
- ⑤ ‘불’과 ‘문’을 구성하는 자음은 각각 ‘ㅂ, ㄹ’, ‘ㅁ, ㄴ’으로 서로 다르지만, 모음은 둘 다 ‘ㅍ’로 같다.

**03**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모음은 단모음이다. ‘ㅡ, ㅏ, ㅑ’는 모두 단모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의 ‘ㅑ’, ②의 ‘ㅕ, ㅗ’, ③의 ‘ㅑ’, ⑤의 ‘ㅑ, ㅑ’는 이중 모음이다.

**04** ㉠과 ㉡의 ‘말’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

**오답 해설**

- ① ‘형이 말을 타고 달린다.’에 쓰인 ‘말’은 동물을 나타내므로 ㉠의 의미이다.
- ② ㉡의 장음 부호를 살려 ‘말’을 길게 발음하면 ㉡의 의미이다.
- ③ ㉠과 ㉡은 단어의 형태는 같지만, 뜻은 각각 동물과 언어(음성 기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로 다르다.
- ⑤ ㉠과 ㉡을 이루는 자음과 모음은 동일하며, 둘 다 자음은 ‘ㅁ, ㄹ’ 2개이고 모음은 ‘ㅏ’ 1개이다.

**05 [서술형]** 제시된 사진을 보면 입이 점점 벌어지면서 혀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ㅡ, ㅏ, ㅑ’는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할 때 각각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셋을 구분하여 발음하려면 ‘ㅡ’는 혀의 위치를 높여서, ‘ㅏ’는 혀의 위치를 중간쯤에 두고, ‘ㅑ’는 혀의 위치를 낮춰서 발음해야 한다.

**06** (가)의 ‘ㅣ, ㅑ, ㅓ, ㅕ, ㅗ’는 전설 모음이고, (나)의 ‘ㅡ, ㅏ, ㅑ, ㅓ, ㅕ, ㅗ’는 후설 모음으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가)를 발음할 때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고, (나)를 발음할 때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다.

**07** ‘찌르레기’에 쓰인 모음은 ‘ㅣ, ㅡ, ㅑ’로, 모두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평순 모음이다.

**오답 해설**

①의 ‘ㅑ’, ②의 ‘ㅑ’, ③의 ‘ㅑ, ㅑ’, ④의 ‘ㅑ’는 원순 모음이다.

**08** ‘ㅑ’는 원순 모음이고, ‘ㅣ’는 평순 모음이므로 ‘오이’를 발음하면 동그랗게 오므렸던 입술 모양이 점차 평평해진다(ㄴ). 또한 ‘ㅑ’는 후설 모음이고, ‘ㅣ’는 전설 모음이므로 ‘오이’를 발음하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한다(ㄷ).

**오답 해설**

ㄱ. ‘ㅑ’는 중모음이고, ‘ㅣ’는 고모음이므로 ‘오이’를 발음하면 혀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입이 점점 다물어진다.

**09** 전설 모음은 ‘ㅣ, ㅑ, ㅓ, ㅕ, ㅗ’이다. 그중 원순 모음은 ‘ㅑ, ㅓ’

고이고 평순 모음은 ‘ㅣ, ㅑ, ㅓ’이다. ‘ㅑ, ㅓ’ 중 고모음은 ‘ㅓ’(㉠)이다. ‘ㅣ, ㅑ, ㅓ’ 중 저모음은 ‘ㅓ’(㉡)이다. 후설 모음은 ‘ㅡ, ㅏ, ㅑ, ㅓ, ㅕ’이다. 그중 원순 모음은 ‘ㅑ, ㅓ’이고, 둘 중 중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ㅓ’(㉡)이다.

**10**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은 ‘ㅡ, ㅏ, ㅑ, ㅓ, ㅕ’이다. 그중 입술이 둥글게 오므라지지 않는 평순 모음은 ‘ㅡ, ㅏ, ㅑ’이고, 셋 중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저모음은 ‘ㅑ’이다.

**11 [서술형]** 단모음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ㅑ’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이고, ‘ㅓ’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중모음이다. 따라서 ‘ㅑ’와 ‘ㅓ’를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두 모음의 차이가 저모음, 중모음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ㅑ’를 발음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최대한 낮추어 발음하고 ‘ㅓ’를 발음할 때는 입을 보통으로 벌리고 혀의 높이를 중간쯤에 위치시켜 발음한다.

**12** ㉢은 혃바닥과 셤입천장 사이이다. 이 위치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셤입천장소리인 ‘ㅈ, ㅉ, ㅊ’이다.

**오답 해설**

- ① ‘ㄱ, ㅋ, ㆁ’은 여린입천장소리로 ㉠에서 소리가 난다.
- ② ‘ㄷ, ㅌ, ㄷ’은 잇몸소리로 ㉡에서 소리가 난다.
- ③ ‘ㅂ, ㅃ, ㅍ’은 입술소리로 ㉢에서 소리가 난다.
- ④ ‘ㅅ, ㅆ’은 잇몸소리로 ㉡에서 소리가 나고, ‘ㅎ’은 목청소리로 ㉤에서 소리가 난다.

**13** ㉠은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는 소리인 울림소리이고, ㉡은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이다.

**오답 해설**

- ① 발음할 때 성대 근육을 긴장시켜 소리를 내는 것은 된소리로 ㉠과 ㉡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발음할 때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는 비음은 ㉢의 ‘ㄴ, ㅁ, ㅇ’ 세 개뿐이다. ㉠의 ‘ㄹ’과 ㉡의 ‘ㄱ, ㄷ, ㅂ, ㅅ’은 모두 비음이 아니다.
- ③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며 소리를 내는 것은 원순 모음으로, 자음의 분류 기준과는 관련이 없다.
- ⑤ 발음할 때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면서 소리가 나는 것은 거센소리로 ㉠과 ㉡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 ‘ㅅ’은 마찰음에 해당하며,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 마찰을 일으키며 소리를 내는 자음이다.

**15** 성대 근육을 긴장시켜 소리를 내며,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자음은 된소리이다. ‘뽕’에 된소리인 ‘ㅍ’이 쓰였다.

**16**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는 ‘ㄴ, ㄹ, ㅁ, ㅇ’을 제외한 자음이다[질문 1]. 그중 소리 나는 위치가 혃끝과 윗잇몸 사이인 잇몸소리는 ‘ㄷ, ㅌ, ㅌ, ㅅ, ㅆ’이다

[질문 2]. 그중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며 소리를 내는 파열음은 ‘ㄷ, ㅌ, ㅌ’이다[질문 3]. 그중 세고 거친 느낌을 주는 소리인 거센소리는 ‘ㅌ’이다[질문 4]. 따라서 정답은 ‘ㄷ’이다.

**17 [서술형]** ‘스스로 나는 새’에 쓰인 자음은 ‘ㅅ, ㄹ, ㄴ’ 3개이다. ‘ㅅ, ㄹ, ㄴ’은 모두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할 때 잇몸소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코안이나 입안의 올림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ㅅ’은 안올림소리, ‘ㄹ, ㄴ’은 올림소리로 차이가 난다.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해도 ‘ㅅ’은 마찰음, ‘ㄹ’은 유음, ‘ㄴ’은 비음이라는 차이가 있다.

**18** 마찰음은 ‘ㅅ, ㅆ, ㅎ’이고, 그중 잇몸소리는 ‘ㅅ, ㅆ’이므로 첫 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ㅅ, ㅆ’이다. 후설 모음은 ‘ㅡ, ㅜ, ㅗ, ㅜ, ㅛ, ㅝ’이고, 그중 저모음은 ‘ㅗ’이므로 가운데소리에 해당하는 모음은 ‘ㅗ’이다. 입술소리는 ‘ㅁ, ㅂ, ㅃ, ㅍ’이고, 그중 비음은 ‘ㅁ’이므로 끝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ㅁ’이다.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단어는 ‘삼’ 또는 ‘쌈’이다.

**19** ‘고양이’를 구성하는 자음은 ‘ㄱ, ㅇ’이고 모음은 ‘ㅛ, ㅑ, ㅣ’이다. 그중 자음인 ‘ㄱ’과 ‘ㅇ’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모두 여린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ㅛ, ㅑ, ㅣ’ 중 ‘ㅛ, ㅣ’는 단모음이고 ‘ㅑ’는 이중 모음이다.
- ② ‘ㅛ’는 후설 모음이고, ‘ㅣ’는 전설 모음이다.
- ③ ‘ㄱ, ㅇ’ 중 ‘ㅇ’은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인 비음이다.
- ④ ‘ㄱ, ㅇ’ 중 ‘ㅇ’은 올림소리이다.

**20** ㉠에 쓰인 모음 ‘ㅛ’는 이중 모음이지만, ㉡에 쓰인 ‘ㅣ, ㅛ, ㅜ’와 ㉢에 쓰인 ‘ㅡ, ㅜ’는 모두 단모음으로 ㉠과 ㉢에는 이중 모음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에 쓰인 자음 ‘ㅂ’은 입술소리이고, ㉡의 ‘ㅁ, ㅍ’과 ㉢의 ‘ㅂ’도 입술소리이다.
- ③ ㉢에 쓰인 모음 ‘ㅡ, ㅜ’는 후설 모음이고, ㉡에 쓰인 ‘ㅛ, ㅜ’와 ㉢에 쓰인 ‘ㅜ’도 후설 모음이다.
- ④ ㉠~㉢에는 각각 ‘ㄱ’, ‘ㄱ, ㅍ, ㅌ’, ‘ㅌ’의 거센소리가 사용되었다.
- ⑤ ㉠~㉢에는 각각 ‘ㄷ’, ‘ㅌ’, ‘ㄹ, ㅌ, ㅌ’의 잇몸소리가 사용되었다.

**21** ‘주꾸미’의 올바른 발음은 ‘[주꾸미]’이고, ‘질기다’의 올바른 발음은 ‘[질기다]’이다(ㄴ). ‘거꾸로’를 ‘[꺼꾸로]’로, ‘자르다’를 ‘[짜르다]’로 발음하는 것은 단어의 첫소리에 오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잘못 발음한 것으로 ‘주꾸미’를 ‘[쭈꾸미]’로, ‘질기다’를 ‘[질기다]’로 잘못 발음하는 것과 동일한 예에 해당한다(ㄹ).

**오답 해설**

- ㄱ. ‘주꾸미’의 올바른 표기는 ‘주꾸미’이고, ‘질기다’의 올바른 표기는 ‘질기다’이다.
- ㄷ. 밑줄 친 부분에서는 단어의 첫소리에 오는 예사소리 ‘ㅈ’을 된소리인 ‘ㅉ’으로 잘못 발음하였다.

**22** 단모음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ㅜ’는 후설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이고, ‘ㅛ’는 후설 모음, 원순 모음, 중모음이다. 즉, ‘ㅜ’와 ‘ㅛ’는 후설 모음, 원순 모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할 때 고모음, 중모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ㅛ’를 발음할 때는 ‘ㅜ’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위치가 좀 더 내려와 중간쯤에 오도록 하고 입도 더 벌려야 한다.

**(2) 우리말 문자 체계**

본문 182쪽

개념 확인 **극복**

- 1 자주정신    2 (1) ○ (2) ○ (3) × (4) ○    3 ㉠ ㄱ  
㉡ ㅅ

이해 + 탐구 응용 문제

본문 186~192쪽

- 1 ①    2 ③    3 ②    4 ②    5 ③    6 입술소리  
7 ④    8 △    9 ③    10 모음자를 서로 합하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11 ③    12 ⑤

**1** 『훈민정음』의 서문은 세종 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목적과 취지를 직접 밝히고 있는 글로, 한글을 창제한 원리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제목에서 세종 대왕이 직접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 ③ 우리나라 말을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고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였다.
- ④ 세종 대왕이 직접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훈민정음은 창제 당시 한글의 이름이다. 이를 통해 한글의 명칭을 알 수 있다.
- ⑤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다.

**2**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글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한글이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글에는 백성에 대한 세종 대왕의 사랑(애민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3**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다.

4 자음 기본자는 자음을 발음할 때 소리 나는 위치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예를 들어, ‘ㄱ’은 혀 뒤와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나므로 ‘ㄱ’을 발음할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ㄴ’은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나므로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5 가획의 원리는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지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ㅂ’과 ‘ㅃ’은 기본자인 ‘ㅂ’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지는 것을 나타낸 글자이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상형의 원리, ‘ㅋ’은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 ② ‘ㄴ’은 상형의 원리, ‘ㄷ’은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 ④ ‘ㅅ’은 상형의 원리, ‘ㅆ’은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 ⑤ ‘ㅇ’은 상형의 원리, ‘ㆁ’은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6 ‘ㅁ, ㅂ, ㅃ’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입술소리에 해당한다. 세 글자는 모양이 비슷하여 비슷한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7 ‘빙’(순경음 비읍)은 ‘ㅂ’ 아래에 ‘ㅇ’을 이어 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즉, 자음자를 옆으로 나란히 붙여 쓰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이어 쓰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ㅃ’은 ‘ㄷ’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붙여 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 ② ‘ㅃ’은 ‘ㄷ’과 ‘ㅁ’을 옆으로 나란히 붙여 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 ③ ‘ㅃ’은 ‘ㅂ’, ‘ㅅ’, ‘ㄷ’을 옆으로 나란히 붙여 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 ⑤ ‘ㅃ’은 ‘ㅂ’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붙여 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깨념 플러스**

**연서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순경음**

- 연서: 자음자를 위아래로 이어 쓰는 방식으로, 순경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입술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인 순음자 밑에 ‘ㅇ’을 이어 쓰는 것을 말함.
- ㉠ ㅁ, ㅂ, ㅃ, ㅅ
- 순경음: 고어(古語)에서, 입술을 거쳐 나오는 가벼운 소리로 입술가벼운소리 또는 가벼운입술소리라고도 함.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음운임.

8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으나 소리가 세지지 않는 글자는 이체자인 ‘ㅆ’(받침음)이다. ‘ㅆ’은 지금은 사라져서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글자이다.

9 ‘ㄷ’과 ‘ㄸ’은 ‘ㄷ’에 획을 더한 것이 아니라, 각각 땅의 평평한 모양과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오답 해설**

- ① ‘ㄷ’ (아래아)는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글자이다.
- ② 모음 기본자인 ‘ㅏ, ㅑ, ㅣ’는 각각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 ④ 모음 기본자와 자음 기본자는 모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 ⑤ 모음 기본자를 바탕으로 다른 모음자인 초출자와 재출자가 만들어졌다.

10 ‘ㄱ, ㅋ, ㆁ, ㄷ’은 초출자로, ‘ㄷ’과 ‘ㄸ’에 ‘ㄷ’을 한 번 합하여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ㄱ, ㅋ, ㆁ, ㄷ’은 재출자로, 초출자 ‘ㄱ, ㅋ, ㆁ, ㄷ’에 ‘ㄷ’을 한 번 더 합하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11 ‘ㅃ’은 ‘ㅂ’에 획을 더한 것이 아니라 ‘ㅂ’에 ‘ㄷ’을 합하여 만들어졌다.

**오답 해설**

- ① ‘ㅃ’은 ‘ㅂ’에 ‘ㄷ’을 합하여 만들어졌고, ‘ㅆ’은 ‘ㅅ’에 ‘ㄷ’을 합하여 만들어졌으므로 ‘ㅂ’과 ‘ㅆ’의 창제 원리는 모두 합성의 원리이다.
- ② ‘ㅃ’은 ‘ㅂ’에 ‘ㄷ’을 합하여 만들어졌다.
- ④ ‘ㅆ’은 ‘ㅅ’과 ‘ㄷ’을 합하여 만들어졌고, ‘ㅃ’은 ‘ㅂ’과 ‘ㄷ’을 합하여 만들어졌으니, ‘ㅆ’을 만들 때 사용된 기본자는 ‘ㅅ’과 ‘ㄷ’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ㅃ’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단모음이고, ‘ㅆ’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이중 모음에 해당한다.

12 ‘ㅃ’은 ‘ㅂ’과 ‘ㄷ’을 합하여 만들어졌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193~195쪽

- 1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소리
- 3 ㉠, ㉡    4 ㉢

1 [서술형] 디지털 기기 사용 시 자판 입력 속도가 빠르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져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효율적이다.

2 한글 ‘ㅏ’는 [아]로만 소리 나지만, 알파벳 ‘a’는 [애], [에이], [아] 등 다양하게 소리 난다. 따라서 한글은 알파벳과 달리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함을 알 수 있다.

3 모아쓰기는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가로세로로 모아서 쓰는 표기 방식이다. 음절은 독립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 말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음절 단위로 모아서 쓰면 읽기가 쉽고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답 해설**

㉢ 초성, 중성, 종성을 차례대로 늘어놓아 쓰는 방식은 모아쓰기가 아니라 풀어쓰기이다.

4 ㉠과 ㉡에는 우리말 파괴 현상의 예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 알파벳을 섞어서 쓴 예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의 ‘꺽었어’, ‘안 했어’는 받침을 잘못 표기한 예로, 각각 ‘꺽었어’, ‘안 했어’라고 표기해야 한다.
- ③ ㉠의 ‘생파’, ‘생선’, ‘마버’, ‘엘베’와 ㉡의 ‘빠카춤’은 모두 말을 지나치게 줄여 쓴 줄임말에 해당한다.
- ④ ㉠의 아래씨(← 알았어), 어떡케(← 어떻게), 마너(← 많어)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예이다.
- ⑤ ㉡에서 ‘멍멍이’를 ‘댕댕이’라 하고 ‘멍작’을 ‘땡작’이라 하는 것은 글자 모양이 비슷한 말을 만들어 쓴 예에 해당한다.

1 ㉓ 2 (1)㉒ (2)㉑ (3)㉑ (4)㉑

- 1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실제로 쓰기에 알맞은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실용적'이 적절하다.
- 2 (1) ㉑의 빈칸에는 균을 없애기 위해 식품에 열을 가했다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가열'이 들어가야 한다.  
 (2) ㉑의 빈칸에는 'ㄱ'에 획을 더했다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가획'이 들어가야 한다.  
 (3) ㉑의 빈칸에는 도시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증가'가 들어가야 한다.  
 (4) ㉑의 빈칸에는 새로운 기능이 더 보태졌다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추가'가 들어가야 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 01 ① 02 ② 03 ② 04 ② 05 ④ 06 ③  
 07 ④ 08 ② 09 'ㆍ, ㅡ, ㅣ'는 모두 대상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ㆍ'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10 ① 11 ④ 12 ④ 13 ④ 14 ②  
 15 ① 16 ⑤ 17 ㉑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차례대로 풀어쓰는 풀어쓰기 방식이, ㉒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세로로 모아쓰는 모아쓰기 방식이 쓰였다. ㉑의 모아쓰기는 음절 단위로 표기하기 때문에 읽기가 쉽고 의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8 ④

- 01 제목에서 '세종이 직접 훈민정음을 만들다'라고 하였으니, 한글을 창제한 사람은 세종 대왕임을 알 수 있다(ㄱ). 글에서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라고 하였으니 한글이 창제 당시에는 총 28자였음을 알 수 있다(ㄴ).
- 02 ㉑은 한자는 중국 말을 표기하는 문자여서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한자 자체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3 'ㄴ'은 잇몸소리로,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오답 해설**  
 ① 'ㄱ'은 여린입천장소리로, 허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③ 'ㅁ'은 입술소리로,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 ④ 'ㅅ'은 잇몸소리로,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⑤ 'ㅇ'은 여린입천장소리로,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 04 'ㄷ'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낸 글자는 'ㄷ'이 아니라 'ㅌ'이다. 'ㄷ'은 획을 더하였으나 소리가 세지지 않는 예외 글자인 이체자에 해당한다.
- 05 'ㄷ', 'ㅌ', 'ㅍ'은 획을 더하여 만들어졌지만,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가 세지지 않는다. 이들을 묶어 이체자라고 부른다.  
**오답 해설**  
 ① 'ㄱ'은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 'ㄷ, ㅌ, ㅍ'은 가획자이다.  
 ② 'ㄴ, ㄹ, ㅁ, ㅂ'은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이다.  
 ③ 'ㅌ, ㅍ, ㅎ'은 가획의 원리로 만든 가획자이다.  
 ⑤ 'ㅇ'은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 'ㅎ, ㅈ'은 가획자이다.
- 06 ㉑과 ㉒은 모두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병서의 원리라고 한다.

개념 플러스

병서의 종류

- 각자 병서: 같은 자음 두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것  
 ㉑ ㄱ, ㄷ, ㅌ, ㅍ, ㅈ, ㅊ
- 합용 병서: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것  
 ㉒ ㄱ, ㄴ, ㄹ, ㅈ, ㅊ

- 07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자는 'ㄱ, ㄷ, ㅌ, ㅍ, ㅈ, ㅊ, ㅌ, ㅍ, ㅎ'이다. 그중 오늘날에 사용하지 않는 글자는 'ㅎ'이다.  
**오답 해설**  
 ①, ② 'ㄷ'과 'ㅌ'은 이체자이다.  
 ③, ⑤ 'ㅌ'과 'ㅍ'은 가획자이지만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글자이다.
- 08 모음 기본자는 'ㆍ, ㅡ, ㅣ'이고 초출자는 'ㅏ, ㅑ, ㅓ, ㅕ'이며, 재출자는 'ㅛ, ㅜ, ㅠ, ㅠ, ㅠ'이다.
- 09 [서술형] 'ㆍ, ㅡ, ㅣ'는 모음 기본자로 각각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 10 ㉑은 초출자, ㉒은 재출자로 모음자를 서로 합하여 만드는 합성의 원리로 창제되었다.  
**오답 해설**  
 ② ㉑은 모음 기본자인 'ㆍ, ㅣ'에 'ㅡ'를 한 번 합하여 만들어졌고, ㉒은 ㉑에 'ㅡ'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들어졌다.  
 ③ ㉑과 ㉒은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고, 자음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④ ㉑과 ㉒은 모음자를 서로 합하여 만든 것으로, 대상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가 아니다.  
 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인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모음자는 ㉒이다. ㉑은 단모음에 해당한다.
- 11 'ㄱ'은 'ㄱ'과 'ㅣ'를 합하여 만들었다. 'ㄱ'과 'ㅣ'를 합하여 만든 글자는 'ㄱ'이다.

12 자음자의 경우,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글자는 ‘ㄱ’이고 여기에 다시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로 만든 글자는 ‘ㅋ’이다. 모음자의 경우, ‘ㅡ’와 ‘ㆍ’를 합하는 합성의 원리로 만든 글자는 ‘ㅏ’와 ‘ㅑ’이다. 따라서 해당 자음자(초성)와 모음자(중성)를 조합하면 ‘코’ 또는 ‘쿠’가 정답이 된다.

13 ‘다정’에 쓰인 자음자는 ‘ㄷ, ㅈ, ㅇ’이고, 모음자는 ‘ㅏ, ㅑ’이다. 그중 ‘ㄱ’은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ㅣ’에 ‘ㄹ’을 한 번 합하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진 초출자이다.

14 제시된 자료에서는 한국어의 한글, 일본어의 가나, 중국어의 한자로 휴대 전화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과 속도에 관한 실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다만 일본과 중국에서 문자가 아닌 음성 통화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한글 표기는 일본어의 가나 문자 전환 표기나 중국어의 병음 표기를 통한 간체자 전환 표기에 비해 무려 7~8배나 빠르다고 하였다.
- ③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인공 지능의 음성 정보 활용에 탁월하다고 하였다.
- ④ 일본어가 중국어에 비해 휴대 전화 문자 입력 속도가 5초 빠르다고 하였다.
- ⑤ 한글 표기는 일본어의 가나 문자 전환 표기나 중국어의 병음 표기를 통한 간체자 전환 표기에 비해 7~8배나 속도가 빨라 정보 축적 능력이 우수하다고 하였으므로 한글은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유리한 글자라고 할 수 있다.

15 ‘ㅃ’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하면 된소리에 해당한다. ‘ㅃ’은 ‘ㅂ’을 가로로 나란히 적어서 된소리임을 나타낸 것이다.

16 ‘ㅏ’와 ‘ㅑ’는 모두 모음자이다(ㄱ). ‘ㅏ’는 [아]로만 소리 나지만 ‘ㅑ’는 [애], [에이], [아]로 다양하게 소리 난다(ㄷ, ㄹ). ‘ㅏ’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가 여러 소리를 나타내는 ‘ㅑ’에 비해 음성을 문자로 변환할 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ㄹ).

**오답 해설**

ㄴ. ‘ㅏ’와 ‘ㅑ’는 모두 일정한 소리를 표시하는 기호이다.

17 [서술형] ㉗는 초성, 중성, 종성을 차례로 늘어놓아 쓰는 풀어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고, ㉘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가로세로로 묶어 쓰는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㉗와 ㉘ 중 음절 단위로 묶어 쓴 모아쓰기 방식의 표기가 읽기 쉽고 의미 파악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18 (가)는 무분별하게 새말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우수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말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글자를 모아쓰도록 고안한 세종의 의도를 재확인하는 작업’이라거나 ‘한글의 자형과 창제 원리를 되새기는 과정’이라고 하며 새말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② (가)와 (나)는 새말이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말들을 예로 들어 우리말 파괴 현상을 다루고 있다.
- ③ (가)의 ‘생파’, ‘생선’, ‘마버’, ‘엘베’, (나)의 ‘빠카충’은 모두 줄임말 형태의 새말이다.
- ⑤ (가)에서는 한글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하였고, (나)에서는 한글은 글자 하나가 가진 정보량이 많아 줄어듣기 이전의 말을 추측하기 쉽다고 하였다. 따라서 둘 다 한글이 정보 전달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본문 210~215쪽

- 01 ⑤    02 ⑤    03 ㉠ 소리 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 받고 나오는 ⑥ 소리 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 받지 않고 나오는    04 ④    05 ④    06 ①
- 07 ③    08 ①    09 <보기>의 단어들에 쓰인 모음인 ‘ㅜ, ㅠ, ㅣ, ㅡ’는 모두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하면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고모음이다.    10 ①    11 ⑤    12 ①
- 13 ⑤    14 ①    15 ①    16 ⑤    17 ㉠보다 ㉡이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준다. 이는 ㉠에 쓰인 ‘ㅂ’은 예사소리이고, ㉡에 쓰인 ‘ㅃ’은 된소리이기 때문이다.    18 ④    19 ④
- 20 ④    21 ③    22 ③    23 ⑤    24 ①    25 같은 자음자를 옆으로 나란히 적어서 된소리임을 나타내었다.    26 ④
- 27 ②    28 ①    29 ③    30 ⑤    31 알파벳은 하나의 글자가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일대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하는 데 한글이 유리하다.    32 ⑤    33 ④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오답 해설**

①은 띄어쓰기의 단위인 어절, ②는 형태소, ③은 단어, ④는 음절에 대한 설명이다.

02 ㉠~㉣에 공통으로 쓰인 모음은 첫음절의 ‘ㅜ’와 둘째 음절의 ‘ㅣ’이다(ㄴ).

㉠과 ㉡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음운은 첫음절의 초성에 쓰인 ‘ㅂ’과 ‘ㅃ’이다(ㄷ).

㉠과 ㉢에 쓰인 자음은 각각 ‘ㅂ, ㄹ’, ‘ㅃ, ㄹ’로 두 개이고, ㉣에 쓰인 자음은 ‘ㄹ’ 한 개이다. ‘우’는 모음 ‘ㅜ’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다(ㄹ).

**오답 해설**

ㄱ. ㉠의 ‘부리’는 ‘ㅂ, ㅜ, ㄹ, ㅣ’, ㉡의 ‘뿌리’는 ‘ㅃ, ㅜ, ㄹ, ㅣ’의 네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의 ‘우리’는 ‘ㅜ, ㄹ, ㅣ’의 세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03 [서술형]** ‘아’를 발음할 때는 공기의 흐름에 막힘이 없었지만 ‘악’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막힘이 생긴 까닭은 자음인 ‘ㄱ’이 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음은 소리 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고, 모음은 소리 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04** 제시된 모음들은 모두 이중 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을 말한다.

**오답 해설**

- ①은 안울림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 ②는 원순 모음, ③은 전설 모음, ⑤는 저모음에 대한 설명으로, ②, ③, ⑤는 모두 단모음에 해당한다.

**05** 표에서 ‘ㄱ’은 전설 모음이기 때문에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원순 모음이고, ‘ㄷ’은 평순 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평평해지는 것은 ‘ㄷ’만 해당한다.
- ② ‘ㄷ’과 ‘ㄴ’은 모두 평순 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아야 한다.
- ③ ‘ㄷ’과 ‘ㄴ’은 모두 저모음이므로 둘 다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가장 낮다.
- ⑤ ‘ㄷ’과 ‘ㄴ’은 둘 다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고,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각각 중모음, 저모음이라는 차이만 있다. 따라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아니라 혀의 높이에서만 차이가 난다.

**06** ‘ㅣ’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이고, ‘ㅛ’는 전설 모음, 원순 모음, 중모음이다. ‘ㅡ’는 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이고, ‘ㅜ’는 후설 모음, 원순 모음, 중모음이다.

**07** ‘우아’에 쓰인 ‘우’는 고모음, 원순 모음, 후설 모음이고, ‘아’는 저모음, 평순 모음, 후설 모음이다. 따라서 ‘우아’를 발음하면 고모음이 저모음으로 바뀌므로 혀의 높이가 높았다가 점차 낮아지고, 원순 모음이 평순 모음으로 바뀌므로 둥글게 오므라졌던 입술이 점차 평평해진다. 하지만 ‘우’와 ‘아’는 모두 후설 모음이므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변화 없이 계속 뒤쪽에 있다.

**오답 해설**

- ① ‘아우’의 ‘ㅏ’는 저모음, 평순 모음, 후설 모음이고, ‘우’는 고모음, 원순 모음, 후설 모음이다. 따라서 발음할 때 혀의 높이는 낮았다가 점차 높아지고, 입술 모양은 평평했다가 둥글어지며,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변화 없이 계속 뒤쪽에 있다.
- ② ‘어이’의 ‘ㅣ’는 중모음, 평순 모음, 후설 모음이고, ‘ㅣ’는 고모음, 평순 모음, 전설 모음이다. 따라서 발음할 때 혀의 높이는 중간쯤이었다가 점차 높아지고, 입술 모양은 계속 평평하며,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한다.
- ④ ‘오아’의 ‘ㅡ’는 고모음, 평순 모음, 후설 모음이고, ‘ㅏ’는 저모음, 평순 모음, 후설 모음이다. 따라서 발음할 때 혀의 높이는 높았다가 점차 낮아지고, 입술 모양은 계속 평평하며,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변화 없이 계속 뒤쪽에 있다.

⑤ ‘이오’의 ‘ㅣ’는 고모음, 평순 모음, 전설 모음이고, ‘ㅜ’는 중모음, 원순 모음, 후설 모음이다. 따라서 발음할 때 혀의 높이는 높았다가 점차 낮아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입술 모양은 평평했다가 둥글어지며,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한다.

**08** ‘ㄱ’과 ‘ㅁ’은 단모음으로, 전설 모음이면서 원순 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고모음, 중모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혀의 높이이다(ㄱ).

**09 [서술형]** ‘분위기’에는 ‘ㄱ, ㄱ, ㅣ’, ‘비누칠’에는 ‘ㅣ, ㄱ’, ‘스승님’에는 ‘ㅡ, ㅣ’의 모음이 쓰였다. 따라서 이 단어들이 쓰인 모음은 ‘ㄱ, ㄱ, ㅣ, ㅡ’이고,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했을 때 모두 고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ㅣ, ㄱ’은 전설 모음, ‘ㅡ, ㄱ’은 후설 모음으로 나뉘고,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ㄱ, ㄱ’은 원순 모음, ‘ㅣ, ㅡ’는 평순 모음으로 나뉜다.

**10** 현대 국어의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ㅌ, ㆍ, ㅎ, ㅏ, ㅑ, ㅒ, ㅓ, ㅕ’으로 총 19개이다.

**11** ‘ㄱ, ㅋ’은 혀 뒤와 어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나는 어린입천장소리로 **4**에서 발음된다.

**오답 해설**

- ① ‘ㅅ, ㅆ’은 잇몸소리이므로 혀끝과 윗잇몸 사이인 **2**에서 발음된다.
- ② ‘ㅁ, ㅂ’은 입술소리이므로 두 입술 사이인 **1**에서 발음된다.
- ③ ‘ㅇ’은 어린입천장소리이므로 **4**에서 발음되고, ‘ㅎ’은 목청소리이므로 **5**에서 발음된다.
- ④ ‘ㄷ, ㅌ’은 잇몸소리이므로 혀끝과 윗잇몸 사이인 **2**에서 발음된다.

**12** 자음 중에서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며 소리 나는 울림소리는 ‘ㄴ, ㄹ, ㅁ, ㅇ’이다. 그중 소리 나는 위치가 혀끝과 윗잇몸 사이인 잇몸소리는 ‘ㄴ, ㄹ’이다. 그중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 내는 비음은 ‘ㅇ’이다.

**13** ㉠은 파열음, ㉡은 파찰음, ㉢은 마찰음, ㉣은 비음, ㉤은 유음에 대한 설명이다. ‘고무’에 쓰인 자음 중 ‘ㄱ’은 파열음이고, ‘ㅁ’은 비음이므로 ‘고무’에 유음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포도’에 쓰인 ‘ㅍ, ㅌ’은 모두 파열음이다.
- ② ‘주차’에 쓰인 ‘ㅈ, ㅊ’은 모두 파찰음이다.
- ③ ‘새싹’에 쓰인 ‘ㅅ, ㅆ’은 모두 마찰음이다.
- ④ ‘무용’에 쓰인 ‘ㅁ, ㅇ’은 모두 비음이다.

**14** 발음할 때 성대 근육이 긴장되면서 소리 나고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소리는 된소리이다. ‘끄떡끄떡’에는 된소리 ‘ㄱ, ㅌ’이 사용되었다.

**15** ㉠에 쓰인 ‘ㄴ, ㅁ’은 입술소리이다. 하지만 ㉡의 ‘ㅈ, ㅊ’은 센 입천장소리, ㉢의 ‘ㄱ, ㅇ’은 어린입천장소리로, ㉣과 ㉤에는 입술소리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② ㉠에 쓰인 ‘모’와 ㉡에 쓰인 ‘오’는 비음이지만, ㉢에 쓰인 ‘ㅈ, ㅊ’은 모두 파찰음으로 비음이 아니다.
- ③ ㉢에 쓰인 자음은 ‘ㅈ, ㅊ’이고, ㉡에 쓰인 자음은 ‘ㄱ, ㅇ’이므로 ㉢과 ㉡에 쓰인 자음의 개수는 2개로 서로 같다.
- ④ ㉢에는 ‘ㅈ’이라는 거센소리가, ㉡에는 ‘ㄱ’이라는 된소리가 쓰였다.
- ⑤ ㉢에 쓰인 ‘ㅈ, ㅊ’은 모두 파찰음으로 ㉡에는 파열음이 쓰이지 않았다. ㉠에 쓰인 ‘ㅂ’과 ㉡에 쓰인 ‘ㄱ’은 모두 파열음이다.

**16** ‘톡톡 터지는 팝콘’에는 ‘ㅌ’이 세 번, ‘ㅍ’, ‘ㅋ’이 각각 한 번씩 쓰였다. ‘ㅌ, ㅍ, ㅋ’과 같은 거센소리가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ㄷ). ‘톡톡 터지는 팝콘’에 쓰인 자음은 ‘ㅌ, ㄱ, ㅈ, ㄴ, ㅍ, ㅂ, ㅋ’으로, ‘ㅌ, ㄱ, ㅍ, ㅂ, ㅋ’은 파열음이고 ‘ㅈ’은 파찰음, ‘ㄴ’은 비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파열음과 파찰음은 쓰였지만, 마찰음은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ㄹ).

**오답 해설**

- ㄱ. ‘터지는’과 ‘팝콘’에 쓰인 ‘ㄴ’은 울림소리이다.
- ㄴ. ‘톡톡 터지는 팝콘’에 쓰인 자음인 ‘ㅌ, ㄱ, ㅈ, ㄴ, ㅍ, ㅂ, ㅋ’을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ㅂ, ㅍ’은 입술소리, ‘ㄴ, ㅌ’은 잇몸소리, ‘ㅈ’은 센 입천장소리, ‘ㄱ, ㅋ’은 여린입천장소리이다. 따라서 목청소리인 ‘ㅎ’은 쓰이지 않았다.

**17 [서술형]** ‘박박’과 ‘뽡뽡’은 음절의 초성에 쓰인 자음이 ‘ㅂ’과 ‘ㅃ’으로, 두 단어는 각각 예사소리와 된소리가 쓰였다는 차이가 있다. 예사소리에 비해 된소리는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준다.

**18** ‘ㄴ’과 ‘ㄷ’은 모두 잇몸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오답 해설**

- ① ‘너도밤나무’에 쓰인 모음인 ‘ㄴ, ㅏ, ㅓ, ㅜ’는 모두 단모음이다.
- ② ‘ㅏ’와 ‘ㅓ’는 모두 전설 모음이 아니라 후설 모음이다.
- ③ ‘ㅏ’와 ‘ㅜ’는 모두 평순 모음이 아니라 원순 모음이다.
- ⑤ ‘ㅂ’은 안울림소리이면서 파열음이고, ‘ㅁ’은 울림소리이면서 비음으로 소리 내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19** ‘जू꾸미’의 첫음절에 나오는 첫소리는 ‘ㅈ’인 예사소리이므로, 발음도 예사소리 그대로 [जू꾸미]로 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③ ‘जू꾸로’의 ‘जू’, ‘소나기’의 ‘소’는 각각 단어의 첫음절에 나오는 첫소리의 예사소리이므로 [जू꾸로], [소나기]로 발음해야 한다.
- ② ‘깍두기’는 [깍뚜기]로 발음해야 한다. ‘두’는 ‘깍뚜기’라는 단어의 둘째 음절이므로 단어의 첫음절에 나오는 첫소리가 예사소리인 경우 예사소리로 발음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 ⑤ ‘찌르다’는 단어의 첫음절의 첫소리가 원래 된소리이므로 된소리 그대로 [찌르다]로 발음해야 한다.

**20** ‘이오연’의 ‘오’는 중모음, ‘이오연’의 ‘우’는 고모음이다. 따라서 ‘오’를 발음할 때는 ‘우’보다 입을 좀 더 벌리고 혀의 위치를 좀 더 낮추어 혀가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21** 이 글은 세종 대왕이 직접 한글(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과 취지를 밝힌 글이다.

**22** ㄱ은 애민 정신, ㄴ은 실용 정신, ㄹ은 자주정신을 표현한 내용으로 이 글에 담긴 한글의 창제 정신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ㄷ. 이 글에서는 한자가 중국의 말을 표기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는 중국 말과 다른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는 문자로는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는 문자인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종 대왕이 한자가 우수한 문자라고 생각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한자의 장점에 관한 내용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 ‘ㄱ, ㄴ, ㅁ, ㅂ, ㅅ, ㅇ’은 자음 기본자로, 각각 소리 나는 위치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음을 표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더 세짐을 나타내는 글자는 가획자로, 가획자를 만들 때 적용된 원리를 가획의 원리라고 한다.

**25 [서술형]** ‘ㄱ, ㅌ, ㅃ, ㅆ, ㅈ’은 모두 같은 자음자를 나란히 적는 병서의 원리로 만든 글자이다. 또한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했을 때는 된소리이다. 즉, 같은 자음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식으로 된소리라는 말소리의 특징을 글자에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26** ‘ㅁ’은 울림소리이고 ‘ㅂ, ㅍ’은 안울림소리인 것은 맞지만,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의 울림 여부가 글자 모양에 반영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답 해설**

- ① ‘ㅁ’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했을 때 입술소리로 실제 입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 ② ‘ㅂ, ㅍ’은 ‘ㅁ’과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입술소리이므로 글자 모양도 서로 비슷하다.
- ③, ⑤ ‘ㅂ, ㅍ’은 ‘ㅁ’을 기본자로 하여 ‘ㅁ’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졌는데,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세지는 특성이 글자 모양에 반영되었다.

**27** ‘ㆍ, ㅡ, ㅣ’는 모음 기본자로,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글자이다.

**오답 해설**

- ① ‘ㆍ’은 오늘날에는 사라진 글자로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 ③, ④, ⑤ ‘ㆍ, ㅡ, ㅣ’는 각각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28** 초출자는 ‘ㄱ’과 ‘ㅣ’에 ‘ㆍ’를 한 번 합하여 만든 글자인 ‘ㄱ, ㅑ, ㅓ, ㅕ’이다. 재출자는 초출자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글자로 ‘ㄱ, ㅓ, ㅕ, ㅗ’이다.

**29** 초성에 해당하는 자음자는 이 모양을 본뜬 기본자인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인 ‘ㅈ, ㅊ’이다. 중성에 해당하는 모음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인 ‘ㅣ’에 ‘ㆍ’를 한 번 합하여 만든 글자인 ‘ㅏ, ㅓ’이다. 종성에 해당하는 자음자는 이체자인 ‘ㄹ, ㅎ, ㅇ’이다. 따라서 ‘둥, 성, 절, 출, 참’ 중에서는 ‘ㅈ, ㅑ, ㅓ’로 이루어진 ‘절’이 정답이다.

**오답 해설**

- ① '동'은 초성, 중성, 종성에 해당하는 글자가 모두 <조건>에 맞지 않는다.
- ② '성'은 중성에 해당하는 글자만 <조건>에 맞는다.
- ④ '홀'은 초성과 종성에 해당하는 글자만 <조건>에 맞는다.
- ⑤ '참'은 초성과 종성에 해당하는 글자만 <조건>에 맞는다.

**30** (나)에서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글자라고 하였다. 실제로 (가)의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여서 중국어 발음을 영어로 찾은 다음 해당 한자를 찾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한글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자판 입력이 쉽다(ㄴ). (가)의 한자에 비해 (나)의 한글은 자판 입력이 쉽고 빠르기 때문에 정보 처리가 빨라 정보화 시대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ㄷ).

(가)에서는 중국어 한자의 경우 자판 입력을 할 때 중국어 발음을 영어로 찾은 다음 한자로 변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나)에서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글자로, 변환 과정 없이 자판 입력을 하면 바로 문자가 완성된다고 하였다(ㄹ).

**오답 해설**

ㄱ. (가)의 한자는 변환 과정이 필요하지만 (나)의 한글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가 (나)에 비해 문자를 입력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31 [서술형]** <학습 활동>의 제시된 자료에서 'ㄷ'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나타내는 데 반해 'ㅅ'는 하나의 글자가 다양한 소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사람이 발성한 음성 의미 내용을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하는 데에는 한글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32** 모아쓰기는 음절 단위로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세로로 묶어서 쓰는 것인데, 음절은 독립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 말소리의 단위이므로 모아쓰기할 때 읽기가 쉬워 문자 인식이 빨라진다.

**오답 해설**

- ㉠, ㉡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초성, 중성, 종성의 차례로 늘어놓아 쓰는 방식은 풀어쓰기이고, 초성과 종성에 오는 자음, 종성에 오는 모음은 음소에 해당한다.
- ㉢, ㉣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세로로 묶어서 쓰는 방식은 모아쓰기이고, 모아쓸 때의 단위는 음절이다.

**33** 'ㅈ'과 'ㅊ'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할 때 모두 센입천장 소리에 해당한다. 소리 나는 위치가 같아 글자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ㄴ).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할 때 'ㅈ'은 예사소리이고 'ㅊ'은 거센소리이다. 예사소리인 'ㅈ'에 획을 더하여 'ㅊ'을 만들어 거센소리의 특성을 글자에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ㄷ).

**오답 해설**

ㄱ.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는 'ㅅ'이다. 'ㅅ'은 'ㅈ'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서술·논술형 문제**

본문 216~217쪽

**01** ㉠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오는지의 여부

**02** (1) 'ㄱ'과 'ㅋ'은 평순 모음, 전설 모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저모음과 중모음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ㄱ'을 발음할 때는 'ㄱ'보다 입을 좀 더 크게 벌려 혀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

(2) '우'와 '오'는 원순 모음, 후설 모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고모음과 중모음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오'를 발음할 때는 '우'보다 입을 좀 더 크게 벌려 혀의 위치가 중간쯤 오게 한다.

**03** (1) ㄴ, ㅍ, ㅃ (2)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입술소리이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안울림소리, 파열음이다. (3) 'ㄴ'은 예사소리, 'ㅍ'은 거센소리, 'ㅃ'은 된소리이다.

**04** ㉠ 잇몸소리, 발음할 때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 울림소리,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는 소리이다. ㉢ 비음, 발음할 때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이다.

**05** ㉢ 자주 ㉣ 백성 ㉤ 실용

**06**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는 모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음 기본자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 기본자인 'ㅏ, ㅑ, ㅓ, ㅕ'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다.

**07** 'ㅌ'은 'ㄷ'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 'ㅌ'이 거센소리임을 나타낸다. 'ㄹ'은 'ㄷ'을 가로로 나란히 적는 병서의 방식으로 만들어 'ㄹ'이 된소리임을 나타낸다.

**08** 초출자와 재출자는 모두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초출자는 모음 기본자인 'ㅏ'와 'ㅑ'에 'ㅇ'을 한 번 합하여 만들어졌다. 재출자는 초출자에 'ㅇ'을 한 번 더 합하여 만들어졌다.

**평가 요소** 음운의 개념과 종류 이해하기

**01** 음운은 말소리의 단위로,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음운에서 자음은 소리 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고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다. '물'과 '불'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요소는 'ㄹ'과 'ㅂ'으로, 글자의 초성으로 쓰인 음운인 자음에 따라 두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물'과 '말'은 중성으로 쓰인 음운인 모음 'ㅜ'와 'ㅓ'에 따라 두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과 ㉡에 들어갈 내용을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단모음의 분류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하기

- 02** (1) 표를 보면 '내 책'에 쓰인 'ㄴ'과 '네 책'에 쓰인 'ㄷ'는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저모음, 중모음이라는 차이만 있다. 따라서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발음하려면 혀의 높이를 구분하여 'ㄴ'는 혀를 최대한 낮추어 발음하고, 'ㄷ'는 혀를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하여 발음해야 한다.
- (2) 표를 보면 '지우'에 쓰인 'ㄴ'과 '지오'에 쓰인 'ㄷ'는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고모음, 중모음이라는 차이만 있다. 따라서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발음하려면 혀의 높이를 구분하여 'ㄴ'는 혀를 높여서 발음하고, 'ㄷ'는 혀를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하여 발음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1)과 (2)에서 두 모음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2점
(1)과 (2) 중 하나만 두 모음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1)과 (2)에서 두 모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적절하게 썼지만,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은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6점
(1)과 (2) 중 하나만 두 모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적절하게 썼지만, 정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은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자음 체계를 이해하고 자음 분류하기

- 03** (1) '불, 풀, 뿔'에 쓰인 서로 다른 자음은 'ㅂ, ㅍ, ㅃ'으로, 이 세 자음에 의해 의미가 구별된다.
- (2) 'ㅂ, ㅍ, ㅃ'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입술소리이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이면서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인 파열음이다.
- (3) 'ㅂ, ㅍ, ㅃ'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하면 각각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1), (2), (3) 세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2점
(1)~(3) 중 두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8점
(1)~(3)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자음 체계를 이해하기

- 04** ㉠ 'ㄴ'과 'ㄹ'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모두 잇몸소리에 해당한다. ㉡ 'ㄴ, ㄹ, ㄷ, ㄹ'은 모두 코안이나 입안의 울림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 'ㄴ, ㄹ'

'으'는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모두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비음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 ㉡, ㉢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2점
㉠, ㉡, ㉢ 중 두 개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8점
㉠, ㉡, ㉢ 중 한 개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한글의 창제 정신 파악하기

- 05** ㉠에는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기 위한 우리 글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겨 있으므로 자주정신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는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애민 정신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는 누구나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데서 실용 정신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 ㉢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 ㉡, ㉢ 중 두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 ㉡, ㉢ 중 한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의 창제 원리 이해하기

- 06**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모음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를 만든 원리는 상형의 원리로 동일하지만, 상형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내용에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적절하게 쓰고, 기본자를 만든 공통된 원리와 내용의 차이점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에 해당하는 글자는 적절하게 쓰지 않았지만, 기본자를 만든 공통된 원리와 내용의 차이점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7점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적절하게 쓰지 않았고, 기본자의 공통된 원리와 내용의 차이점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에 해당하는 글자는 적절하게 썼지만, 기본자의 공통된 원리와 내용의 차이점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자음자의 창제 원리 이해하기

07 'ㄷ'은 'ㄷ'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졌고, 'ㅌ'은 'ㄷ'을 가로로 나란히 적는 병서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ㄷ, ㅌ, 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하면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해당한다. 즉,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로 거센소리의 특성을 글자에 반영하였고,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적는 병서의 원리로 된소리의 특성을 글자에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ㄷ'과 'ㅌ'의 창제 원리와 그와 관련된 말소리의 특징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ㄷ'과 'ㅌ' 중 창제 원리와 그와 관련된 말소리의 특징을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모음자의 창제 원리 이해하기

08 ㉠의 초출자는 '·'를 'ㅡ, ㅣ'와 합하여 만들어졌고, ㉡의 재출자는 초출자에 '·'를 다시 합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초출자와 재출자 모두 모음자를 합하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채점 기준	배점
초출자와 재출자의 공통된 창제 원리와 초출자와 재출자를 창제한 방법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초출자와 재출자의 공통된 창제 원리와 초출자와 재출자를 창제한 방법 중에서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 4 비판적인 읽기, 돌아보며 글 쓰기

## (1) 복합양식 자료나 글 평가하며 읽기

본문 220~221쪽

**개념 확인**

- 1 복합양식    2 ③    3 ⑤    4 동영상 자료    5 ③  
6 ×    7 ○

**확인 문제**

본문 224~231쪽

- 1 ⑤    2 ④    3 ⑤    4 ②    5 ⑤    6 ⑤    7 ①  
8 ⑤    9 ⑤    10 ⑤    11 ⑤    12 ④    13 식자재  
새활용 시장은 식품 시장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와 같은 비식품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14 ⑤    15 ⑤    16 ④  
17 비유(은유)

- 복합양식 자료를 평가할 때는 내용의 타당성, 신뢰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각 자료가 내용 전달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글을 읽지 않아도 정보 파악이 가능한지는 평가 기준으로 삼기 적절하지 않다.
- 이 글의 제목은 '세상을 위해서는 이게 더 좋아'라는 단정적 표현과 '반란'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태도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의 마지막 문장에서 못난이 농산물은 '외관상 흠이 있거나 모양이 투박해 규격 상품으로 시장에 나가지 못했지만 맛과 신선도에 이상이 없는 농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2의 시각 자료는 규격 가시오이와 못난이 오이의 외관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개념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못난이 농산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통계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3에서는 등급 외 농산물 폐기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와 폐기 비용 발생이라는 경제적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이라는 환경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 등급 외 농산물은 '가공용으로 혈값에 처분되거나 생산지에서 폐기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생활계 폐기물 중 22.9퍼센트를 음식물이 차지한다고 했을 뿐,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농산물 폐기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 등급 외 농산물은 '대부분 가공용으로 혈값에 처분되거나 생산지에서 폐기된다.'고 했으므로, '활용되지 않고 모두 폐기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6 3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문 조사 결과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계 자료를 출처와 함께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조사 연도, 대상,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밝혀 정보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7 '생산지에서 폐기되는 농산물' 사진은 농산물이 대량으로 버려지는 현장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못난이 농산물의 외관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은 2의 사진 자료이다.
- 8 4에서는 국제연합환경계획의 2019년 식량 위기 보고서를 자료의 출처로 명시하고, 전 세계 식량 폐기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 9 3에서는 버려지는 농산물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문제를 제기하고, 4에서는 이것이 전 세계적 문제임을 보여 준 후, 국제연합과 농산물 시장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10 5에서는 프랑스의 '부끄러운 과일과 채소' 캠페인을 식자재 재활용의 본격적인 시작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①, ②는 6의 내용이며, ③, ④는 식자재 재활용 사례가 아니다.
- 11 가격 할인 정보가 본문에는 제시되어 있지만, 캠페인 사진 자료 속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2 6의 방송 뉴스 화면은 국내 연구진이 못난이 감자로 손 보습제, 수면 팩 등의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식자재 재활용 시장이 비식품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 13 [서술형] 5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 이후로 식자재 재활용 시장은 식품 시장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와 같은 비식품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14 7의 조사 자료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상품성을 인정받은 농산물과 비교한 자료가 아니다.
- 15 7의 도표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재구매 의사, 전반적 만족도, 항목별 만족도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16 8에서는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이점으로 농업인은 추가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고(ㄷ),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ㄹ),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ㄴ)고 설명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의 발전은 식자재 재활용 시장의 확대를 보여 주는 사례일 뿐,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이점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ㄱ).
- 17 '지구와 경제를 살리는 영웅'은 못난이 농산물이 경제적·환경

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영웅'에 빗대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232~235쪽

- 1 (1) ㉠ (2) ㉡ (3) ㉢ (4) ㉣ 2 ⑤ 3 ② 4 ③  
5 ⑤ 6 ① 7 ③ 8 긍정적

- 1 이 기사의 각 소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못난이 농산물이란: 못난이 농산물의 개념 설명
  - 버려지는 농산물의 현주소: 버려지는 농산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 오염 문제 제기
  - 식자재 재활용 시장: 프랑스의 캠페인, 국내의 못난이 감자 사업 등 식자재 재활용의 구체적 사례 제시
  -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이점: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경제적·환경적 이점 제시
- 2 이 기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개념을 설명하고, 등급 외 농산물 폐기 문제를 제기한 후, 식자재 재활용 사례를 제시하며, 못난이 농산물 소비가 경제적·환경적 이점이 있는 가치 있는 선택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사를 쓴 의도는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이점을 소개하는 것이다.
- 3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내용의 신뢰성 평가 기준에 해당한다. 타당성은 주장의 합리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신뢰성은 정보의 정확성과 출처의 공신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4 <보기>는 '못난이 농산물은 맛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모양이 이상한 농산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이라는 추측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 없이 개인의 추측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5 '2센티미터 이내', '4센티미터 이내'와 같이 문자로만 설명하지 않고 사진 자료도 같이 제시하여 독자가 등급 기준을 훨씬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6 '세상을 위해서는 이게 더 좋아'라고 필자의 관점을 단정적으로 드러냈으며, '못생긴 농산물의 반란'에서 기존과 달리 못난이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시작한 새로운 움직임이 '반란'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7 이 기사에서 방송 뉴스 동영상을 활용한 것은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과 같은 식자재 재활용의 실제 사례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8 이 기사에서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와 재구매 의사 등의 수치를 도표로 제시함으로써,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 본문 236~239쪽

1 ⑤    2 ④    3 ⑤    4 ④

- 1 이 글은 음악이 공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후, 이를 밝히기 위한 연구 설계를 소개하고, 연구 결과를 제시한 뒤,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2 이 글의 그래프는 '음악 없음', '가사 없는 음악', '싫어하는 가사', '좋아하는 가사'라는 네 가지 상황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의 정답률을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보여 준다.
- 3 재민은 “딱 하나의 실험만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 걸까요?”라고 물으며, 단일 연구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4 연구 결과에서 좋아하는 가사와 싫어하는 가사의 정답률 차이가 거의 없었으므로, 이러한 과장된 표현이 '좋아하는 가사의 음악만 들으려는 태도'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 본문 241쪽

1 손실    2 ③

- 1 '손실'은 '잃어버리거나 축나서 손해를 봄. 또는 그 손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회사의 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상황, 영양소를 일부 잃어버린 상황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단어이다.
- 2 '외관'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규격'은 '제품이나 재료의 품질, 모양, 크기, 성능 따위의 일정한 표준'을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겉모양에 흠이 있거나 모양이 투박하여 등급 외 농산물로 구분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소단원 핵심 문제** ☞ 본문 244~247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 글의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전개될 내용의 방향을 안내한다. 등    06 ⑤    07 ②  
 08 ⑤    09 ④    10 ②    11 ④    12 ⑤    13 ⑤  
 14 농업인이 추가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01 이 글은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화제에 대해 설명한 후, 버려지는 농산물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문제와 함께 '식자재 재활용'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화제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서술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상을 분류하기보다는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구조이다.
  - ③ 대립하는 관점을 절충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④ 전문가의 견해를 비판하고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02 이 글은 못난이 농산물이 버려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못난이 농산물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 ② (다)에서 버려지는 농산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 오염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나)에서 '가시오이'의 농산물 표준 규격 기준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다)에서 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식자재 재활용'을 언급하고 있다.

03 ㉠은 이 글의 표제와 부제로 독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표현을 사용하였다.

- 오답 해설**
- ① '못생긴 농산물의 반란'이라는 표현으로 글의 중심 화제가 못난이 농산물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③ '세상을 위해서는 이게 더 좋아'라는 표현에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세상을 위해서는 이게 더 좋아'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반란'이라는 비유를 통해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04 (가)에 못난이 농산물의 실제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를 추가하면, 독자가 못난이 농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독자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사진만으로는 농산물 폐기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다.
  - ② (보기)의 사진은 못난이 농산물만 보여 주고 있어서 농산물 표준 규격의 등급 기준에 관한 이해를 돕기는 어렵다.
  - ③ 외관 사진만으로는 맛과 신선도를 확인할 수 없다.
  - ⑤ (보기)의 사진은 못난이 농산물만 보여 주고 있고, 상품성을 인정받은 농산물과의 유통 과정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

05 [서술형] (가)는 기사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가)에서는 글의 중심 화제인 '못난이 농산물'을 제시하고 이후 전개될 내용의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06 (다)는 농산물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 오염이라는 문제를 통계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식자재 재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대응까지 다루고 있다.
- ② 농산물 폐기 문제의 원인(규격 미달 판정)과 결과(경제적 손실, 환경 오염) 모두를 다루고 있다.
- ③ 국제연합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목표로,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④ 공공 기관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며, 민간 부문의 의견 부재가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07**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연합환경계획 등 공공 기관의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반된 의견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료를 출처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조사 연도(2020년)와 구체적 수치(평균 11.8퍼센트, 약 516만 톤 등)를 명시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④ 가시오미의 농산물 표준 규격 등급 기준을 2센티미터, 4센티미터 등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 ⑤ 국제연합환경계획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식품 폐기물이 유발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08** (가)에서 프랑스의 한 대형 슈퍼마켓은 '부끄러운 과일과 채소' 캠페인을 통해 못난이 당근을 '시세보다 30~50퍼센트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프랑스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2014년 '부끄러운 과일과 채소' 캠페인을 통해 시세보다 30~50퍼센트 낮은 가격으로 못난이 당근을 판매했던 것이 식자재 재활용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 ② (나)에서 '화장품 업계에서는 못난이 감자로 만든 손 보습제, 수면 팩 등이 판매되기도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 ③ (가)에서 '식자재 재활용 시장은 식품 시장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와 같은 비식품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 ④ (다)에서 '2021년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95.5퍼센트가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09** ㉞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농산물 시장의 문제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유통 과정이 지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㉞은 '겉모습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닿지 못하고 버려지는 농산물을 주로 유통업체에서 구매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며 식자재 재활용의 개념을 정의하여 글의 화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㉞은 프랑스의 식자재 재활용 사례에 이어 '강원도 못난이 감자' 사업이라는 국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㉞은 조사 연도와 조사 기관, 95.5퍼센트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㉞은 '이제 못난이 농산물 소비는 못난 선택이 아니게 되었다.'라며 '못난이 농산물'과 '못난 선택'이라는 인상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임을 환기하고 있다.

**10** [A]의 캠페인 광고는 '못생긴 감자, 2013 대표 으깬 감자 당선'이라는 문구를 통해 겉모양은 못생겼지만 맛에는 차이가 없어서 으깬 감자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전달하며, 못난이 채소도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캠페인 광고에서 못난이 농산물이 특별한 방법으로 재배되거나 영양가가 더 높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③ 캠페인 광고에서 으깬 감자 요리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가공용으로만 활용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 ④ 캠페인 광고에서 으깬 감자 요리에 활용된다고 하였지만 '가장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⑤ 캠페인은 못난이 농산물을 시세보다 30~50퍼센트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으므로 더 비싸게 판매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1** [B]는 못난이 감자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되었음을 알리는 방송 뉴스 동영상으로, 식자재 재활용이 비식품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실감 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B]에는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B]에는 전문가 인터뷰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B]에는 못난이 농산물 판매 현장 사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B]에는 못난이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가격 비교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 [C]의 도표는 2021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의 재구매 의사(95.5퍼센트)와 전반적 만족도(3.71점), 항목별 만족도(맛·식감 3.95점, 가격 3.64점 등)를 보여 준다. 이러한 도표는 조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평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므로 적절한 표현 방법이다.

**13** ㉞에서는 못난이 농산물을 '영웅'에 비유하여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못난이 농산물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적절한 표현 방법이다.

**오답 해설**

- ① '울퉁불퉁'이 의태어인 것은 맞지만 이는 못난이 농산물의 외형을 묘사한 것일 뿐, 이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상처가 난'이라는 묘사는 사실적 표현일 뿐이며, 이후 '영웅'이라는 긍정적 비유로 전환되므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원천 차단'은 못난이 농산물이 시장에 나가지 못했던 과거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과장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④ '지구와 경제를 살리는'은 못난이 농산물 소비가 지닌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점'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14 [서술형] (라)에서 '농업인은 추가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폐기되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는 농산물을 줄일 수 있어 기후 위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2) 복합양식 자료 활용하여 점검·조정하며 글 쓰기

본문 248~249쪽

### 개념 확인 **꼭**

- 1 두(2)   2 ⑤   3 ⑤   4 계획하기   5 ① 고쳐쓰기  
 ② 조정   6 ③   7 ②   8 ④

###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252~265쪽

- 1 ⑤   2 ②   3 ⑤   4 ③   5 ②   6 점검, 조정  
 7 ③   8 ④   9 ②   10 ②   11 ⑤   12 ④  
 13 ④   14 ⑤   15 ④   16 ①   17 ④   18 ⑤  
 19 ①   20 ②   21 ⑤   22 ①   23 ③   24 문단  
 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5 ①  
 26 ⑤   27 <보기>의 글쓰기 계획이 글에 반영되었다. 왜냐  
 하면 지도 자료와 함께 '매우 가까워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  
 기 때문이다.   28 ㉠ 사진 ㉡ 동영상 ㉢ 지도   29 ⑤

- 1 학생회 공지에 이미 '학생회 누리집에 올려 주세요.'라고 되어 있으므로 글을 실을 매체가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윤주가 고민 끝에 글을 올릴 매체를 정한 것이 아니다.
- 2 친구들은 시원한 곳, 배움이 있는 곳, 가까운 곳, 편의 시설이 갖춰진 곳을 원한다고 했지만, 체험 비용이 무료인 곳에 대한 요구는 언급하지 않았다.
- 3 윤주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시원한 바닷가에서 즐기는 신나는 갯벌 체험에 관한 내용이라면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주제를 정하였다.
- 4 윤주는 학급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여행 장소를 소개하고자 하므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는 것이다.

5 윤주는 갯벌 체험을 전혀 모르는 친구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야겠다고 계획하였다.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독자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6 글쓰기의 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점검·조정'이라고 한다.

7 글쓰기를 계획할 때는 주제, 글의 목적, 글의 유형, 글을 실을 매체,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료 선정은 계획하기가 아닌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8 예상 독자를 분석할 때는 독자의 관심사나 흥미, 지식수준, 기대나 요구, 태도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독자의 생활 습관은 예상 독자를 분석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아니다.

9 글쓰기 과정 중 자료를 수집하고 점검·조정하는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다.

10 자료 ㉣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갯벌'의 사전적 의미로, 문자만으로 구성된 단일양식 자료이다. 나머지는 모두 두 가지 이상의 표현 양식이 결합된 복합양식 자료이다.

11 자료를 선정할 때는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가능한 한 많은지가 아니라, 자료가 글의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지, 독자의 이해를 돕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12 윤주는 책, 사전, 누리집, 길찾기 응용 프로그램, 인터넷 신문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종이 신문은 자료를 수집한 출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자료 ㉡는 고창 갯벌 센터 전시관 해설의 주제, 대상, 인원, 소요 시간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 해설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14 자료 ㉣는 2013년 자료로 오래되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자료를 확인한 후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겠다는 점검·조정 내용은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자료 ㉣는 『이트레블뉴스』(2013. 7. 28.)로 출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 ② 자료 ㉣는 문자와 사진이 결합된 복합양식 자료이다.
- ③ 자료 ㉣는 갯벌 버스에 관한 내용으로 글의 주제(갯벌 체험 여행)에 부합한다.
- ④ 갯벌 버스는 친구들이 모르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활용 가능한 자료이다.

15 윤주는 "갯벌이 어떤 곳인지는 초등학교 때 배워서 친구 대부분이 알고 있을 거야."라고 판단하여 갯벌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는 자료 ㉣를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16 동영상은 갯벌 체험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자료가 아니라, 조개 잡는 즐거움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자료이다.

**오답 해설**

- ② 윤주는 자료 ㉠에 대해 "갯벌 체험의 즐거움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전달 할 수 있는 자료야."라고 점검하였으므로 자료 ㉠을 활용하기로 한 이유와 일치한다.
- ③ 윤주는 자료 ㉠에 대해 "이동 경로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여 줘."라고 점검하였으므로 자료 ㉠을 활용하기로 한 이유와 일치한다.
- ④ 자료 ㉠은 지도로, 복잡한 설명 없이 이동 경로와 거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특성이 있다.
- ⑤ 동영상과 지도는 모두 독자의 이해를 돕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윤주가 이 자료들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17** 동영상은 시각과 청각 양식이 결합된 자료로, 움직이는 화면과 소리가 함께 제공되어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정보를 전달한다.

**오답 해설**

- ① 책은 문자와 그림이나 사진 등이 결합된 자료로, 움직이는 화면이 아닌 정지된 이미지를 제공한다.
- ② 지도는 시각 정보(그림, 기호, 문자)를 통해 위치를 알려 준다.
- ③ 누리집은 문자,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양식이 복합적으로 제시된다.
- ⑤ 사진은 주로 문자로만 이루어진 자료이며, 움직이는 화면이나 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일부 인터넷 사진은 발음 정보를 소리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진은 문자 중심 자료이다.

**18** 자료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가 글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료의 분량, 색상이나 디자인, 수집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은 자료 선정의 기준이 아니다.

**19** 복합양식 자료의 활용 목적은 글의 분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높이는 것이다.

**20** 윤주가 쓰려고 하는 글은 여행 장소를 소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개요를 통해 3단 구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ㄱ), 말풍선 내용을 통해 여행 장소의 장점을 드러내고(ㄴ), 체험 거리를 시간 순서와 장소 이동에 따라 배치하였음(ㄹ)을 알 수 있다.

**21**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내용을 조직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표현하기, ② 고쳐쓰기, ③ 계획하기, ④ 내용 생성하기의 점검 사항이다.

**22** 윤주는 고창 갯벌 센터와 하진 마을 갯벌 체험장에 가면 단순히 조개를 잡는 재미뿐만 아니라 고창 갯벌 센터 관람을 통한 배움의 가치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하기 위해 제목을 수정하였다.

**23** 윤주는 '처음-중간-끝'의 구성으로 글을 조직하였다.

**24** 체험거리 ①의 내용과 체험거리 ②의 내용이 접속어 없이 바로 이어지고 있어 연결이 자연스럽게 못하기에 윤주는 접속어 '그리고'를 추가하고자 한다.

**25**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활용할 때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표절을 방지하는 쓰기 윤리에 해당한다.

**26** <보기>에서 윤주는 갯벌이 위험할까 봐 걱정하는 친구를 배려하여 하진 갯벌의 안전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독자가 가질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선입견(태도)을 예상하고 이를 해소해 주려는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27** [서술형] 윤주는 글에 지도 자료와 함께 "매우 가까워요!"라는 강조 문구를 사용해 현장 체험 학습 장소가 그렇게 멀지 않아 이동 시간이 짧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글쓰기 계획이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 사진은 시각, 동영상 자료는 시각과 청각이 결합되어 즐겁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나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문자만 제시하는 것보다 이를 함께 제시하면 현장감을 높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공간적 위치와 경로를 시각화한 지도는 문자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목적지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어 독자가 공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여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29**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보 전달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절한 점검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적용+성찰 | 응용 문제**

본문 266~269쪽

- 1 ①    2 ④    3 ③    4 ②    5 ⑤

**1**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역사'는 주제가 너무 넓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기 어렵다. 나머지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화한 것이다.

**2** 친구들의 댓글은 카드 뉴스를 완성하고 게시한 후에 받는 피드백이므로,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3** 카드 뉴스는 복합양식 콘텐츠이므로, 내용 생성 단계에서 주제와 목적에 맞는 문자, 그림, 사진, 도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4** 개요 단계에서는 내용의 구성, 순서, 흐름 등을 점검해야 한다. 디자인의 화려함은 개요 단계의 점검 사항이 아니며, 디자인의 화려함이 아닌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를 표현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다.

5 <보기>의 '카드 뉴스 장면 3'을 점검한 결과,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추상적인 내용의 문자 정보만 제시할 경우 독자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각 자료인 물방울 크기 비교 도표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271쪽

1 ㉓    2 (1) ㉑ (2) ㉒ (3) ㉓ (4) ㉔

- 1 모든 단어에 공통으로 쓰인 한자 '습'은 '합할 합'으로, '합하다'는 여럿이 한데 모이거나 여럿을 한데 모은다는 의미이다.
- 2 취합(聚合)은 '모아서 합침.'의 뜻을, 화합(和合)은 '화목하게 어울림.'의 뜻을, 복합(複合)은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합침. 또는 두 가지 이상을 하나로 합침.'의 뜻을, 부합(附合)은 '서로 맞대어 붙임.'이라는 뜻이다. 이를 고려하면 취합은 ㉑에, 화합은 ㉒에, 복합은 ㉓에, 부합은 ㉔에 들어가야 알맞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274~277쪽

01 ㉓    02 ㉕    03 ㉔    04 ㉕    05 ㉓    06 예상 독자를 분석하여 독자의 기대나 요구를 파악한다.    07 ㉔  
08 ㉕    09 ㉔    10 ㉔    11 주어가 빠져 있어서 문장이 어색하므로, '조개가'를 추가한다.

- 01 윤주의 글은 학급 현장 체험 학습 장소로 갯벌 체험을 소개하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이다. 개인적 감정이나 주장보다는 여행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위치, 이동 시간, 체험 내용, 편의 시설 등)를 제공하고 있다.
  - 02 갯벌 체험에 관해 전혀 모르는 친구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독자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계획이 아니다.
- 오답 해설**
- ① 친구 1의 "일일 체험이니까 너무 멀지 않은 곳이 좋아!"라는 요구를 고려할 때, 적절한 글쓰기 계획이다.
  - ② 친구 3의 "더울 땀이 시원한 곳이 어떨까?"라는 요구를 고려할 때, 적절한 글쓰기 계획이다.
  - ③ 친구 4의 "편의 시설도 제대로 갖춘 곳이면 좋겠어."라는 요구를 고려할 때, 적절한 글쓰기 계획이다.
  - ④ 친구 2의 "새롭게 배우는 것이 있으면 좋겠어."라는 요구를 고려할 때, 적절한 글쓰기 계획이다.

03 윤주의 글은 '학급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여행 장소를 소개'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장하는 글과는 다르다. 갯벌 체험의 필요성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행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오답 해설**
- ①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행복한 갯벌 체험'에서 윤주가 '갯벌 체험 여행'을 주제로 정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학생회 공지에 '우리 학년 친구들에게'라고 예상 독자가 제시되어 있다.
  - ③ 학생회 공지에 '학생회 누리집에 올려 주세요.'라고 글을 실을 매체가 제시되어 있다.
  - ⑤ 학생회 공지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라고 제시되어 있다.

- 04 자료 ㉒는 오래된 자료(2013년)이므로, 최근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갯벌 버스가 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활용해야 한다. 주제에 부합한다고 해서 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정확한지, 최신 자료인지 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 05 자료 ㉔는 동영상 자료로, 움직이는 화면(시각)과 소리(청각) 양식이 결합되어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복합양식 자료이다.

- 오답 해설**
- ① 자료 ㉒는 문자와 사진이 결합된 복합양식 자료이다.
  - ② 자료 ㉓는 문자와 사진이 결합된 복합양식 자료이다.
  - ④ 자료 ㉔는 지도(그림)과, 문자를 통해 위치를 안내하며, 청각 양식은 제공하지 않는다.
  - ⑤ 자료 ㉔는 문자와 사진이 결합된 복합양식 자료이며, 청각 양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 06 [서술형] 윤주는 글을 쓰기 전에 "우리 반 친구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예상 독자인 친구들의 관심사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예상 독자를 분석하여 독자의 지식수준, 기대나 요구, 태도를 파악하는 전략에 해당한다.
- 07 윤주의 글은 여행 장소를 소개하는 정보 전달의 글이므로, 여행 장소의 장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단점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독자의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여행 장소를 소개하는 글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 08 주제가 '배움과 재미를 다 얻을 수 있는 갯벌 체험 여행'이므로, 제목도 배움과 재미(추억)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담아야 한다. '조개 잡기'는 재미만 강조하고 배움의 측면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배움과 추억 잡기'로 수정하여 주제를 포괄적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독자의 흥미를 높이는 표현이지만, 배움의 측면을 드러내지 못한다.
  - ② 배움을 강조하지만, 재미나 추억의 측면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
  - ③ 학급 활동임을 명확히 하지만, 배움과 재미라는 주제를 담지 못한다.

④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지만, 배움과 재미라는 주제의 핵심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

**09** ‘갯벌 체험 전에 ‘고창 갯벌 센터’를 방문해서 30분 동안 해설을 들으며’에서 알 수 있듯이 고창 갯벌 센터 전시관 해설은 1시간이 아닌 30분 동안 진행되며, 갯벌 체험 후가 아닌 전에 관람한다.

**오답 해설**

- ① ‘비용은 갯벌 체험비가 학생 8천 원인데, 활동 중에 캔 조개 중 1킬로그램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고창 갯벌 센터에서 하전 마을 갯벌 체험장까지는 4.6킬로미터로 차로 7분 거리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이런 모양의 갯벌 버스를 타고 2킬로미터 정도의 갯벌을 달려 체험장으로 들어가는데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하전 마을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아름다운 어촌 마을’로 국내 최대 바지락 생산지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보기>는 고창 갯벌 센터에서 하전 마을 갯벌 체험장까지의 이동 거리가 짧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지도이다. 그러므로 ‘장점 1’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1 [서술형]** 표현 측면에서 주어가 빠져 있어서 바구니가 가득 찰 정도로 ‘무엇이’ 많은지 문장의 의미를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 ‘조개가’를 추가하도록 한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본문 284~289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⑤    **05** ④    **06** 시각과 청각이 결합되어 갯벌 체험의 즐거움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어.    **07** ②    **08** ⑤    **09** ④    **10** ⑤    **11** ③

**12** ⑤    **13** ㉠을 제시함으로써 글 전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올바른 쓰기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

**01** (다)에서는 ‘식자재 재활용 시장은 식품 시장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와 같은 비식품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국내 사례로 ‘못난이 감자로 만든 손 보습제, 수면 팩 등이 판매되기도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못난이 감자를 원료로 한 화장품 개발 동영상은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가장 적절하다.

**02** (가)에서는 농산물 표준 규격과 못난이 농산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 <보기>의 ‘농산물 표준 규격 등급도감’과 ‘못난이 오이’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 규격에 맞는 농산물과 그렇지 않은 못난이 농산물의 외관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03** (라)의 ‘지구와 경제를 살리는 영웅’이라는 표현은 못난이 농

산물을 의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뿐 못난이 농산물의 생명력을 강조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04** (다)에서 윤주는 “내가 조사한 여행 장소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글이니까 여행 장소의 장점이 잘 드러나게 내용을 조직해야지.”라고 하며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개요를 조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의 유형보다 독자의 흥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윤주는 학생회 공지 게시판을 보고 글의 목적, 유형, 매체, 독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윤주는 친구들과 대화하며 가까운 곳, 배움이 있는 곳, 시원한 곳, 편의 시설을 갖춘 곳 등 독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다.
- ③ (나)에서 윤주는 책, 누리집, 동영상 등 다양한 복합양식 자료를 수집하고, 각 자료의 활용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있다.
- ④ (나)에서 윤주는 자료 ㉠, ㉡에 갯벌 체험 여행의 장점과 갯벌 체험장에 대한 안내가 잘 나와 있어 활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자료가 글의 주제 및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05** 학생회 공지에서 글의 유형(정보 전달), 목적(여행 장소 소개), 예상 독자(우리 학년 친구들), 글을 실을 매체(학생회 누리집)는 확인할 수 있으나, 글의 분량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답 해설**

- ① 공지에 ‘우리 학년 친구들에게’라고 예상 독자가 명시되어 있다.
- ② 여행 장소를 ‘소개하는’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 ③ 공지에 ‘학생회 누리집에 올려 주세요.’라고 매체가 명시되어 있다.
- ⑤ 공지에 ‘여행 장소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06 [서술형]** 동영상 자료는 시각과 청각 양식이 결합되어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한다. 자료 ㉣ 또한 조개 캐는 모습을 담고 있어 갯벌 체험의 즐거움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 줄 수 있다.

**07** <보기>의 자료는 길찾기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지도로, 복잡한 설명 없이 위치와 거리, 이동 경로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

**오답 해설**

- ① 갯벌 체험의 즐거움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은 동영상 자료이다.
- ③ 갯벌 버스 운행 경로가 아니라 학급 현장 체험 학습 장소까지의 이동 경로를 보여 준다.
- ④ 전시관의 위치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 ⑤ 편의 시설 배치도가 아니라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지도이다.

**08** 3단 구성의 끝부분에서는 대체로 중간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고, 글을 쓴 소감이나 전망을 제시한다. 그러나 (다)에서 윤주가 조직한 개요를 보면 끝에 요약 및 강조를 한다고만 제시되어 있어 글을 쓴 소감을 제시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으며, 소감을 제시할지라도 이는 독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다)에서 윤주는 '처음-중간-끝'의 3단 구성으로 개요를 작성하였다.
- ② 윤주는 '처음' 부분을 점검하며 '친구들의 관심을 유발하려면 경험을 묻기 보다 이전 현장 체험 학습의 아쉬움을 부각하고 이번에 소개하는 현장 체험 학습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어.'라고 조정하였다.
- ③ '처음' 부분에 개별 체험의 장점을 언급하는 것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중간에서 다룬 내용을 소개하는 역할에 해당한다.
- ④ '중간' 부분에서 여행 장소의 장점(짧은 이동 거리, 저렴한 비용, 다양한 체험거리)과 구체적인 체험거리를 제시하여 정보 전달이라는 글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09** (가)는 문자와 도표를, (나)는 문자, 지도, 사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는 작황 부진으로 인한 문제 상황과 못난이 농산물 소비라는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나)에는 이러한 것이 제시되지 않았다.
- ② 두 글 모두 대상을 분류하여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③ 두 글 모두 사건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 ④ 두 글 모두 대립하는 두 관점을 비교하여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10** (가)는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 중심이 아닌 한국소비자원 조사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나)는 윤주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으므로 둘 다 객관적 자료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한국소비자원의 만족도 조사(95.5퍼센트, 3.7점 등) 등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가)는 '영웅'이라는 비유를 통해 못난이 농산물이 단순히 소비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손실과 환경 오염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나)에서 윤주는 이동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며 조개 캐는 재미가 있다는 등 체험 장소의 장점을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④ (나)에서 윤주는 '~어요,' '~어떠셨나요?'와 같이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독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11** (나)에는 '하전 갯벌은 부드럽지만 단단해서 쉽게 체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ㄴ은 글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우리 학교에서 고창 갯벌 센터까지의 거리(83.9킬로미터)와 소요 시간(1시간 17분), 고창 갯벌 센터에서 하전 마을 갯벌 체험장까지의 거리(4.6킬로미터)와 소요 시간(7분)이 제시되어 있어 ㄱ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고창 갯벌 센터에서 해설을 들으며 고창 갯벌의 특징, 생물, 습지 보전 노력에 관한 전시를 관람한다고 제시되어 있어 ㄴ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갯벌 정화, 갈퀴, 바구니 및 사위 시설 등 장비와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제시되어 있어 ㄷ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목에 '시원한 갯벌'이 제시되어 있고, 끝부분에서도 '시원한 바닷바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ㄹ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 '보전'의 사전적 의미는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이다.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본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는 '보호'이다.

**13 [서술형]** 글의 마지막에 참고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정보의 근거가 확실함을 보여 주어 글 전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쓰기 윤리를 실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술·논술형 문제**

본문 290~291쪽

**01** ㉠에는 '반란'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는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못난이 농산물이 기존의 인식을 뒤집고 새로운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음을 인상적으로 드러내어,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적절한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02**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인은 추가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는 폐기되는 농산물을 줄여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03** <보기>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재구매 의사와 만족도를 설명한 부분에 배치하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을 직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며 글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04** 체험 학습 장소의 장점과 다양한 체험거리 소개

**05** ㉡ '배움과 추억 잡기'로 수정한다.

㉢ 문장 앞에 '그리고'와 같은 접속어를 추가한다.

㉣ '많다고 해요.' 앞에 주어 '조개가'를 추가한다.

**평가 요소 표현 방법의 적절성 평가하기**

**01** 이 글의 제목에는 '반란'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반란'이란 '정부나 지도자 따위에 반대하여 내란을 일으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못난이 농산물이 기존 인식을 뒤집고 새로운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음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를 설명하는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므로 적절한 표현 방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의 표현 방법의 적절성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글의 내용 이해하기

**02** 이 글에서는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이점으로 '농업인은 추가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의 이점과, '폐기되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는 농산물을 줄일 수 있어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환경적 측면의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이점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이점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이점을 한 가지 측면에서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자료의 활용 방법과 효과 파악하기

**03** <보기>는 못난이 농산물 구매 실태 및 인식 조사를 목표로 나타낸 것으로,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이점'을 설명하는 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원그래프와 막대그래프를 통해 소비자의 재구매 의사와 만족도를 한눈에 보여 줌으로써,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글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기>의 활용 방법과 그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보기>의 활용 방법과 그 효과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보기>의 활용 방법과 그 효과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04** 이 글의 중간 부분에서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는 고창 갯벌 체험 학습 장소의 장점으로, 짧은 이동 시간과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체험거리로, '고창 갯벌 센터'와 '하전 마을 갯벌 체험'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중간 부분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중간 부분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에 들어갈 내용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중간 부분의 두 가지 핵심 내용 중 하나만을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글을 쓴 후 점검·조정하여 고쳐쓰기

**05** ㉠ <보기>에서 '우리 학급만의 추억을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한 것을 고려할 때, 글의 주제가 '배움과 재미(추억)를 다 얻을 수 있는 갯벌 체험'이므로, 제목도 이를 포괄하도록 '배움과 추억 잡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보기>에서 '문단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므로 '앞 문단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수정'하라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앞 문단(체험거리 ①)에서 뒤 문단(체험거리 ②)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므로, 순서를 나타내는 접속어('그리고', '이어서' 등)를 추가하면 문단 연결이 자연스러워진다.

㉣ <보기>에서 '무엇이 많은지가 불분명'하므로 '문장의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수정'하라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조개가'라는 주어를 추가하여 '조개가 많다고 해요.'로 수정하면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 중 두 개만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 중 하나만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